

『 원주 동학농민운동 』 학술발표회

-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14:00~17:00
- 주 최 : 원주문화원
- 주 관 : 항일독립운동원주기념사업회
- 후 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원도민일보



원 주 문 화 원

『 원주 동학농민운동 』 학술발표회

-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14:00~17:00
- 주 최 : 원주문화원
- 주 관 : 항일독립운동원주기념사업회
- 후 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원도민일보



원 주 문 화 원

『 원주 동학농민운동 』 학술발표회

- ▶ 14시 00분~14시 10분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씀
 내빈소개

- ▶ 14시 10분~14시 40분 - 제1주제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발표 : 성주현(부천대학 교수)
 토론 : 홍동현(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 14시 40분~15시 10분 - 제2주제
 원주지역 동학의 조직과 활동
 발표 : 강대덕(독립기념관 학예연구원)
 토론 : 김양식(충북학연구소장)

- ▶ 15시 10분~15시 40분 - 제3주제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과의 관계
 발표 : 최창희(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 15시 50분~16시 40분 -종합토론 : 질의 및 답변 (사회자/발표자/토론자)
 사회자 : 왕현종
 발표자 : 성주현, 강대덕, 최창희
 토론자 : 홍동현, 김양식, 왕현종

< 목 차 >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5

성주현(부천대학 교수)

□원주지역 동학의 조직과 활동19

강대덕(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과의 관계

최창희(한림대학교 교수)

□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성주현(부천대학 교수)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성주현/부천대

1. 머리말
2. 한말 원주지역 향촌사회의 동향-원주민란을 중심으로
3. 동학의 포교와 원주
4. 맺음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 특히 개항 이후를 '민란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의미한다. 17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생산력은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신분제의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 이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농민층의 분화는 그 심화과정 속에서 생활공간인 토지로부터 격리된 농민들을 중심으로 점차 반봉건적 의식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삼정의 문란, 홍수와 한해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외국상품의 유입과 미곡유출로 농촌사회의 위기의식이 가중되면서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전개하였다.¹⁾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들어 '정감록'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혁성혁명론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수많은 '민란' 또는 '변란'²⁾ 등의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1811년의 '홍경래 난'과 1862년의 '임술민란'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항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었다.

민란 또는 변란의 민중항쟁은 19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1862년으로 대표하는 임술항쟁기에는 전국 70여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항쟁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주로 호남, 호서, 영남 등의 삼남지방에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 중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1894년까지 호남의 경우 38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189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항쟁

1) 개항 이후의 민란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서는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중 제1부 「19세기 말 농민항쟁의 두 흐름」을 참조할 것.

2) '민란'과 '변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민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사람들이 둘째, 국가권력에 의한 賦稅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셋째, 發通聚會와 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란은 투쟁공간이 고을단위에 국한된 지역적 제한성을 보이고 투쟁의 목표 역시 대체로 특정 고을의 부세수취와 관련된 부당함을 반대하는 고을 단위의 경제투쟁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변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훈장, 의원, 지관 등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를 편력하던 소외되고 가난한 寒儒, 貧士 중 일부가 둘째, 정감록류의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조선왕조 자체에 불만을 품고 셋째, 빈민 유랑민 등을 동원하여 특정 고을을 장악한 다음 감영을 거처거나 아니면 곧바로 서울로 공격하기 위해 일으킨 병란이다. 따라서 변란은 민란과 달리 참여층이 특정 고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을 단위를 벗어나 지역간에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투쟁 목표 역시 읍폐의 개혁이나 이서배의 징치를 위해 읍권을 장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전복하고 중앙권력을 장악하는데 있다. (배항섭,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103쪽 및 114쪽)

이 발생하였는데, 많게는 연간 10회 내지 20회 정도의 발생빈도가 높았다.³⁾

이와 같은 민중항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척사운동, 임오군란,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변동, 둘째는 장마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지방관의 탐학, 셋째는 농민층의 분화, 넷째는 외국상품의 유입과 이에 따른 상품화폐구조의 변화, 다섯째 정감록류의 후천개벽사상의 유행 등을 들 수 있다.

원주의 경우도 이러한 민중항쟁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85년에 민란이 일어났다. 원주민란의 원인은 삼정의 하나인 환곡의 폐해에서 비롯되었다.⁴⁾ 원래 농민의 진흥과 군사확보책의 하나였던 환곡은 조선후기 들어 세제화 되면서⁵⁾ 18-19세기에 이르러 최대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민중항쟁의 시기 그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환곡의 폐단이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환곡의 폐단으로 시작된 원주민란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⁶⁾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원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말 원주지역 향촌사회의 동향을 민란이 본격화하고 있는 1885년의 원주민란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주민란의 요인이었던 환곡의 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곁들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주민란은 1894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9년 전, 그리고 동학이 발생한 1860년에 비하면 25년 후에 발행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동학 발생 후 25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9년 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원주민란은 원주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학이 1861년 포교되기 시작한 이래 강원도를 포함한 원주지역의 동학 조직과 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주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2. 한말 원주지역 향촌사회의 동향-‘원주민란’을 중심으로⁷⁾

원주의 지리적 특색은 ‘以近峽之地 山多野少’ 또는 ‘西北沿江 東南近狹’⁸⁾ 이라 하여, 동남부는 험준한 산을 이루고 북서부는 강을 흘러 분지와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⁹⁾ 이러한

3) 김양식의 연구에 의하면 1880년부터 1893년까지 54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발생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외에도 1893년에만 최소 66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고종실록』 26책 22권, 1885년 3월 24일조.

5) 진흥·군자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던 환곡은 조선 후기에 들어 변화되었다. 1554년 의창 원곡의 증가를 위해 환곡이자 중 10%를 회록하여 호조에 속하게 하는 一分耗會錄을 실시함으로써 환곡은 국가재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인 1637년에는 환곡이자 중 30%를 회록하는 삼분모회록이 실시됨으로써 환곡은 진흥을 위한 대비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6) 趙景達, 『朝鮮民衆運動の展開』, 岩波書店, 2002, 70쪽. (이 책은 허영란에 의해 『민중과 유토피아-한국근대 민중운동사』(역사비평사, 2009)로 번역 출간되었다.)

7) 원주민란에 대해서는 조경달의 연구가 유일하다. 조경달은 동경대학교 부속도서관 아가와문고(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按戴狀啓原州』를 통해 원주민란의 원인, 전개과정, 주동인물, 후속조치 등을 분석하였다. 필자도 국내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각종 기관을 통해 검색하였지만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본절에서는 조경달의 연구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를 전거로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유일한 선행연구인 조경달, 「開港期の民亂-原州民亂の事例」, 『朝鮮民衆運動の展開』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8) 『(原州)隨錄』, 「農牒」, 丁丑 8.5 및 10.2; 오영교, 「18세기 원주목의 행정체계와 향촌조직의 운영」, 『한국사연구』 104, 1993, 184쪽 재인용.

9) 원주의 지리적 특색은 다음과 같다. 차령산맥이 동남부를 지나며 비로봉, 삼봉, 남대봉 등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북서부는 비교적 완만한 덕고산, 수래봉, 당산, 관모산 등 해발 5백여 미터의 낮은 산이 솟아 있다. 홍양천, 장양천, 사제천, 삼산천 등의 지류들이 서남부로 흐르는 섬강과 합류하고, 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일찍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관찰부가 신설되면서 감영(이후 목)이 설치되는 등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처럼 원주는 ‘營門이 있는 중요한 곳’이었으나¹⁰⁾ “간사한 백성들이 身役을 피하는 것이 잇따르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의 代充이 그칠 때가 없으므로, 나이 겨우 십여 살에 벌써 密箝에 넣어 나이를 속이고 구차하게 充定하여 으레 布를 거둔다”¹¹⁾고 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고을에 두 개의 관청이 존재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支供이 많아 고을의 재정이 빈약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환곡의 폐단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18세기 원주지역의 면리 편성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민의 성장, 사족 상호간의 갈등, 부세의 부담과 운영을 둘러싼 대립은 촌락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¹²⁾

이와 같은 갈등이 지속·심화되면서 원주지역에서도 1885년 민란이 발생하였다. 한말 민란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삼정문란’이 일차적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민중들은 관아를 점령한 후 조세수취대장을 소각하였으며, 조세수취의 담당자인 관아의 서리들을 공격하였다. 1885년에 전개된 원주민란 역시 삼정의 문란이 그 요인이었다. 그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폐해가 컸던 환곡의 운영과 향촌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환곡제도는 봄 즉 춘궁기에 관청에서 곡식이 떨어진 농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가을 추수기에 1할의 이자를 더하여 거두는 것으로써, 원래 소농민경영의 재생산기반을 국가차원에서 보조해주는 빈민구휼제도였다. 즉 元穀을 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곡을 회수하고 원곡의 1/10인 耗穀을 덧붙여 징수하였다. 그런데 구휼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환곡이 명종대에 호조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곡 중 1/10을 會錄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른바 ‘取耗補川’이 시작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변화되었다. 元穀會錄제도는 원곡의 부족분을 메워주거나 窮民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곡의 일부를 公川으로 전환시켜 중앙과 지방의 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재정의 부족분을 지방의 각 아문에 대해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환곡을 증설 운영하였다. 지방의 각 아문도 중앙 상납분의 증가로 재정이 부족하면서 대동미의 유치분을 환곡으로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보충하였다.¹³⁾ 이로써 환곡제도는 점차적으로 賦稅的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환곡의 분급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제기되었다. 이는 19세기에 들어 국가재정이 환곡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 수탈로 이어졌으며, 환곡제도는 소농민경영의 재생산 기반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¹⁴⁾

19세기 들어서면서 중앙재정의 파탄이 만성화되고 중앙의 아문은 물론 지방의 감영, 병영, 진영, 그리고 군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면서 각 아문의 주요 재정원으로 삼게 되었다. 특히 원주지역은 감영과 자체 환곡이 혼용되고 읍민들을 대상으로

섬강이 북서부로 흐르는 남한강과 합류하면서 원주분지와 기름진 문막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설

10) 『인조실록』, 인조 9년 12월 12일조.

11) 『인조실록』, 인조 27년 2월 3일조.

12) 오영교, 앞의 논문, 186쪽.

13)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9, 239-241쪽.

14)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한국역사연구회, 1994, 84쪽.

분급과 징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럼 18세기 말경 원주목의 환곡 운영과 폐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796년 원주목의 환곡은 邑還 48,084석 7두, 營還 13,297석 1두로 도합 61,381석 8두였다. 이중 읍환은 半留之法, 영환은 매년 盡分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읍환과 영환은 ‘水旱之備 支放之資 皆在於此 不可容易變通’이라 하여, 감영과 원주목의 중요한 재정원이었다.¹⁶⁾ 그리고 환곡의 징수는 12월에 封倉하고 兩麥은 6월 내 준봉하도록 규정하였다. 분급을 위한 還戶成冊은 각 面·洞·리에 전령하여 동과 리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里任·別任·洞任·中尊位가 담당하였다. 환호 작성은 실제 호수에 따라 分還計料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均分을 위해 大中小挾獨殘으로 호수를 구별하였다. 각리 성책 말미에 중존위·리임의 이름을 서명하여 환곡을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환호성책을 작성할 때 分戶 또는 增戶에 따른 민중들의 소요가 없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원주목은 환곡의 분급시 挾戶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전적으로 均分의 뜻을 따른 것이며, 增戶는 없었다는 것과 元戶로서 입적하는데 대한 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官民相孚’의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분급은 邑倉과 外倉을 막론하고 均分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주목에 속한 倉은 司倉·別倉·北倉·西倉·東倉·覺林倉 등 6개였는데, 면리부터 차례를 정해 면리임과 統首가 농민을 인솔하여 지급받았다. 읍창에는 수령이, 별창에는 좌수를 파견하여 분급을 감독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곡의 환호성책, 분급, 징수 등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곡의 폐해는 적지 않았다. 첫째는 각 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식과 운영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곳은 동창에 속한 4개면이 이에 해당하였다. 東倉에 속한 各穀은 8,889석으로 가장 많았지만 民戶는 다른 창에 비해 적은 ‘穀多民少’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분급량으로 인해 民訴가 많이 일어났다. 이에 비해 북창과 서창은 미곡 부정이 심하였고, 營屬과 官屬들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둘째는 환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이었다. 환곡의 징수는 본인이 직접 납부할 때는 부정이 없었지만 倉에서 流運 때 倉屬들이 일부 穀을 수취하거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목의 유생들이 의송을 呈納한 바 있다. 즉 1796년 12월 30일 14개 면의 유생들이 환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는 營倉의 各穀에 대한 분급의 불만이였다. 즉 영창의 환곡이 많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 14面 지역에 대한 영창 각곡의 분급은 누백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약 평생 불식한 外面에 하루 아침에 분급하면 受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망 또는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는 상정가와 시가, 지역간·계절간의 가격차 등 錢還에 따른 폐해였다. 원주는 감영의 소재지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아 항상 부족하였다. 원주목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전량을 조절하려고 하였으나 전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셋째는 환곡 실무자들의 농간에 의한 還民의 바뀌는 폐해였다. 사족들이 양반신분을 이용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富民들이 뇌물을 주고 환곡을 받지 않으려는 폐단이 많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곡의 폐단이 가중되면서 1885년에 이르러 두 차례에 걸쳐 민란이 발생한 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주민란의 원인은 환곡의 폐단이였다. 강원감사 민치서의 장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5) 원주목의 환곡의 운영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앞의 오영교의 「18세기 원주목의 행정체제와 향촌조직의 운영」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16) 「刑牒」, 丙辰 5월 邑弊; 오영교, 앞의 논문, 207쪽에서 재인용.

환곡의 폐단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비록 지금 시작된 잘못을 아니지만, 난민이 소요를 일으켜 인명까지 불타죽었으므로....¹⁷⁾

원주 백성들이 환곡의 폐단을 일신하여 바로 잡겠다고 읍내에 모여서 밤이 깊도록 외쳐대고 아전의 집을 부수었습니다.¹⁸⁾

이 장계의 의하면, 원주민란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온 환곡의 폐단' 때문에 발생하였다. 원주민란이 일어날 당시 원주에는 司倉, 北倉, 營倉 등 3개의 倉이 있었다.¹⁹⁾ 이중 민란의 대상이 된 倉은 北倉이었다. 북창에 속한 6개 면의 농민들은 수령 金好謙에게 정소활동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북창의 관리책임자 色吏(南聖甲)의 부정 수탈을 호소하기 위해 네 번에 걸쳐 정소를 의뢰하였다. 첫 번째는 1885년 2월 당지 유력자인 생원 金宅洙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등소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이어 두 번째는 재차 김택수에게 소장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부로 실제로 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정소 역시 농민들의 간청에 의해 김택수가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답변이 없자 농민들은 네 번째 정소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답변이 없었던 김호겸은 마침내 '분급하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분급을 해야 할 창고에는 1,300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백석만 남아있었다. 부족분 7백석은 남성갑이 절취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농민들은 창고기둥에 남성갑의 죄목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²⁰⁾ 농민들의 요구에 남성갑은 오히려 "나는 일찍이 상경해 전교를 받아 10년간 북창의 책임자가 되었다. 6개 면민을 모두 집어삼켜 버리겠다"²¹⁾라는 폭언으로 농민들을 자극하였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남성갑을 불태워 죽였다.²²⁾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창과 영창에 속한 각면에서도 이에 호응하였다. 李承汝를 최고 주모자로 내세우고 사창 소속 면민에게 통문을 돌려 장날인 3월 12일 민회를 개최하였다. 이 민회에서는 감영에게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였다. 감영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역시 '분급하라'는 답신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창 色吏인 張鵬基에 매수된 元興吉이 술에 취해 면민을 모욕하던 한편 관찰사가 관군을 점호하고 무기고를 열도록 승을 내렸다는 낭설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고 평소 교활하고 악명이 높던 장봉기에 원한이 있던 면민들은 장봉기의 집을 공격하였다. 이어 다음날 3월 13일에는 영창 색리 원형두의 집을 습격하였다.²³⁾

이처럼 초기 정소운동과 민회로 출발한 원주민란은 창고 색리들의 가혹하고 부정한 수탈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민란으로 발전하였다.²⁴⁾ 원주민란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고

17)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4월 24일조.

18)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3월 29일조.

19) 원주의 倉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司倉을 비롯하여 東倉, 西倉, 北倉, 別倉, 覺林倉 6개가 있었다. 그런데 營倉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아 別倉이 營倉인듯 싶다.

20) 남성갑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곡 1천석을 절취함, 둘째 상정가는 전후가 맞지 않으며 곡식을 숨겨두고 민전을 속여 빼앗음, 셋째 소량의 환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私庫에 가두고 악형을 가함, 넷째 이서이면서 양반을 능욕함, 다섯째 일곱 차례 전환을 탐하고 임의로 팔아 1년의 출급을 가볍게 함. (『원주유민품목』; 趙景達, 『朝鮮民衆運動의展開』, 72쪽)

21) 『원주유민품목』; 趙景達, 『朝鮮民衆運動의展開』, 73쪽.

22) 『일성록』 고종 22년 3월 24일조 및 4월 29일조.

23) 원주민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조경달, 『朝鮮民衆運動의展開』의 65-89쪽을 참조할 것.

차 한 농민들의 요구에 사족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가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원주민란은 19세기 들어 전개된 민란, 특히 개항 이후 민란을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학세력의 참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후 전개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제조건'을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²⁵⁾

3. 동학의 포교와 원주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은 후기인 19세기 말에 이르러 봉건적 모순이 한층 격화되어 '민란의 시대'라고 불려질만큼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빈번하였다. 봉건적 왕조와 지방관의 수탈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1811년 홍경래의 난을 기점으로 하여 1862년 진주민란을 거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국 40여 군현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농민봉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1862년에는 경상도 17회, 전라도 9회, 충청도 9개, 경기도·황해도·함경도에서 각각 1회 등 37여 회의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농민봉기는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몽둥이와 죽창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농민들이 읍성을 습격하여 동헌을 점령한 후 수령을 쫓아내거나 수령의 인부를 탈취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또한 관아의 문서 즉 세금장부를 태우고 수탈을 일삼는 향리를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고 해당 군현에서 자행되던 폐단을 고쳐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철종 대에서 고종 대까지 지속된 三政의 문란과 지방관의 탐학, 旱災까지 겹쳐 사회적 불안은 고조되었다. 정부에서는 초기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수령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862년 5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1876년 개항 이전까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민봉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농민봉기가 잦았던 삼남지역보다 수탈구조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76년 개항 이후 지주제의 강화와, 농민층의 점진적 분화, 외국상품의 유입과 농촌경제의 몰락, 관료들의 탐학과 수탈이 가중되면서 강원도에서도 농민들의 항쟁이 본격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1885년 3월 원주민란을 계기로 1889년 1월 정선군과 인제군, 그리고 흡곡현에서, 이해 3월에 통천군과 여름철에 낭천현에서, 1891년 6월에는 고성군에서, 1892

24) 원주민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고을 아전의 주동자 장봉기는 감히 양반의 집을 부수고서는 감영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이미 가장 무거운 죄목에 나열되어 있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자신도 알고 있는 이상 감영에 백성을 모두 모아 놓고 효수를 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하는데, 안해사가 지금 관부로 돌아갔으니, 도신이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安昌의 주동자 김택수는 화가 두려워 총을 쏘아 포교를 내쫓고 공문에 항거하였으며, 營州의 주동자 이승녀는 본래 연명 상소문의 첫 서명자로 일컬어졌으니 그 면모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진범이 모두 확실하니 무거운 형벌이 어찌 아깝겠습니까마는,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수배중에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체포한 뒤에 엄하게 신문하여 자복을 받아 보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宋元玉과 郭在麟은 모두 난민 과 같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주동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세 차례 엄한 형신을 가한 뒤에 원악도 정배하고, 金恩輪, 鄭海壽, 李興世, 元命圭는 모두 차례 엄한 형신을 가한 뒤에 원지 정배해야 합니다. 도망친 李在和는 진영으로 하여금 일체 포교를 풀어 체포해서 신문하고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이로써 장봉기는 효수, 송원옥과 박재린은 원악도 정배, 김사륜·정해수·이흥세·원명규 등은 원지 정배로 각각 처리되었다. 다만 수배 중인 이재화·김택수·이승녀는 이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일성록』 고종 22년 6월 26일조;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6월 26일조; 『조선왕조실록』 고종 22년 6월 26일조)

25) 조경달, 『朝鮮民衆運動の展開』, 86쪽.

년 3월 낭천현에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해인 1893년 12월에는 금성현 등에서 농민들의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들 민란의 원인은 원주민란의 요인이었던 환곡의 폐단을 비롯하여 수령과 이서들의 불법 탐학 등이었다.²⁶⁾

이러한 농민들의 항쟁이 전개된 강원도에는 언제부터 동학이 포교되었을까. 강원도는 동학이 포교된 것은 교단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즉 1863년 12월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와 함께 피체되었던 李慶化²⁷⁾가 1864년 3월경 영월 소밀원²⁸⁾로 정배되었다.²⁹⁾ 이경화는 이곳을 중심으로 동학을 포교하였던 것이다. 이때 원주 출신의 張奇瑞가 동학에 입도하면서 강원도에 동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장기서는 1870년 수운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이곳에 왔을 때 그 가족들을 후원하였다. 이로써 강원도는 1870년 이후 동학교단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관의 지목과 박해를 피해 전전해야 했던 동학교단의 지도부는 영월과 정선을 중심으로 교단의 조직을 복원하고 교세를 확장하였다. 즉 영월의 직동과 소밀원, 정선의 미천과 무은담, 고한의 적조암 등은 당시 수운 최제우의 가족과 동학의 최고지도자 해월 최시형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던 동학교단은 1880년 5월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1백부를 간행하였다.

1880년대는 동학교단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1880년 고종이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화파인사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였고, 1882년에는 조선과 미국이 수교함으로써 이후 서양 열강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동학교단도 초기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으로 한때 교단 존립의 극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1873년 태백산 적조암 기도를 계기로 동학의 포교가 점차 강원도 지역에서 경기도,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1880년과 1881년에 동학의 핵심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각각 간행하였다. 동학 경전의 간행은 동학 창도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관의 탄압에서도 동학교단이 새로운 차원에서 포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지역에도 동학의 교세가 적지 않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870년대와 1880년대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충청도 단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의 활동은 영월과 인접한 원주지역에도 적지 않은 포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 원주지역의 동학활동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장기서가 원주 사람이었고, 최제우의 사가를 뒷바라지 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추종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추정은 1893년 동학교단에서 전개한 척왜양창의운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1892년 10월 공주에서 시작된 교조의 신원운동은 삼례와 광화문의 신원운동을 거치면서 점차 척왜양창의운동을 전환되었다. 특히 광화문에서 교조신원운동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온 동학교인들은 관의 탄압으로 다시 방황하였다. 이들은 점차 당시 동학도소가 있는 보은 장내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유랑민의 처지로 전락된 동학교인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동학교인들은 광화문 신원운동에서 척왜양의 반외세 의식을 경험

26) 김양식, 「고종조(1876~1893) 민란연구」,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89.

27) 李慶化는 李景華와 동일인물이다. 그리고 『고종실록』 고종 1년 2월 29일조 서현순의 장계에 의하면 李正華로 기록되어 있다.

28) 이경화가 정배된 곳이 영월 소밀원인지는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경화에게 입도한 사람은 원주 사람 張奇瑞인데, 정배지에서 입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기서의 경우 원주 사람으로 인제 영월 소밀원으로 이거하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화가 원주에 정배되었다면 원주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동학이 포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최선생문집도원기서』, 경오년조.

한 바 있었다.

한편 보은에 도소를 둔 동학교단은 1893년 3월 10일 수운 최제우의 순도일을 맞아 보은군 청성면 거포리 포전에 있는 김연국의 집에서 제례를 거행하였다. 이날 제례에는 해월 최시형을 비롯하여 손병희·김연국 등 10여 명의 교단의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원주 출신의 李元八도 함께 하였다.³⁰⁾ 이원팔 등은 제례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직 先師의 伸冤이 未伸하고 각 地方에서 道人들이 모두 塗炭에 빠졌으니 保維할 수 있는 方策을 指示하소서.³¹⁾

이에 대해 해월 최시형은 “諸君들은 각지에 通諭하여 八域의 道人을 帳內로 齊會케 하라”고 허락하였다. 당시 원주를 포함한 각지 동학교인에게 보낸 통유문은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 모두 사문의 화에서 살아남았으니, 아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그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우리 성상께서는 자애롭고 각기 생업에 충실하면 큰 혜택을 베풀어 소원을 들어주려 했으나 지방 관속들은 임금의 홍은을 입을 생각은 않고 백방으로 침탈하는 것이 전보다 더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빠져서 망하게 하려 하니, 비록 편안하게 살려고 하여도 어찌 할 수 있으랴. 생각다 못해 큰 소리로 원통한 일을 진정하고자 이제 포유하노니, 각포 도인들은 일제히 모여라. 하나는 도를 지키고 스승을 받드는데 있으며, 하나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계책을 바라는데 있다.³²⁾

이에 따라 각지의 동학교인들은 보은 장내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단은 “지금 왜놈과 양놈들이 이 나라 중심부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 (중략) 우리들은 죽기를 서약하고 왜놈과 양놈을 쓸어버리고 나라에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일어났다”³³⁾라는 패서를 보은 삼문에 붙였다. 동학교인들은 통유문과 패서를 통해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를 새롭게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같은 통유문과 패서를 작성하는데 동참하였던 이원팔도 보국안민과 척왜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본다.

동학교단의 통유문을 받은 각지의 동학교인들은 보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각지에서 모인 동학교인은 약 2만 3천여 명 정도였다.³⁴⁾ 원주에서는 약 2백여 명이 참가하였다가 4월 초에 돌아갔다.³⁵⁾ 이 숫자는 보은관아에서 4월 2일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동학교인들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원주점의 동학교인은 보은군 북면 구치를 넘어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경기도 수원점(840), 용인점(200), 양주 및 여주점(270), 안산점(150), 송파점(100), 이천점(400), 안성점(300), 죽산점(400), 천안점(100), 진천점(50), 충주점(29), 목천점(100) 등과 함께 돌아갔다. 원주점의 2백여 명은 다른 점에 비해 결코 적은 숫자는

30) 오상준, 『本敎歷史』, 『천도교회월보』 31호, 1913.2, 23쪽;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제2편, 1915, 12쪽; 『천도교서』, 포덕 34년 3월 10일조; 강필도, 『동학도종역사』 제12장(갑오동학당혁명 급 일청교전), 1944.

31) 오상준, 『본교역사』, 23쪽 및 『천도교서』, 포덕 34년 3월 10일조.

32) 『동학도종역사』, 제12장(갑오동학당혁명 급 일청교전).

33) 표영삼, 『동학』 2, 통나무, 2005, 283쪽.

34) 당시 보은에 집결한 동학교인은 기록에 따라 편차가 적지 않다. 많게는 8만여 명, 적게는 2만여 명이다. 『오하기문』에는 8만여 명, 어윤중의 장계에는 수만, 일본측 기록인 외교문서에는 2만 3천명, 『속음청사』에는 2만 7천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5) 『취어』,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 사운연구소, 1994, 71쪽.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원주접의 교인들이 참가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지에서 동학교인들이 집결하여 연원단위의 포조직을 할 때 원주의 접주 이원팔³⁶⁾이 관동포 대접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³⁷⁾ 연원 중심의 포조직은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결정되었는데 40명 정도가 대접주로 임명되었다.³⁸⁾ 또 연원은 연원 내에 교인이 증가함에 따라 접주가 여러 명이 생기게 되자 연원을 대표하는 접주를 대접주라 불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강원도를 대표하는 연원은 관동포였으며 연원주이며 대접주가 이원팔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보은에 원주접에서만 참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원주접이 강원도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는 것이다. 1870년대와 1880년대는 영월과 정선 등이 동학교단의 중심무대로써 많은 교인촌이 형성되었지만 1890년대 들어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면서 원주접이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운동으로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동학교단은 1893년 11월 동학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로 법소와 도소를 두었다. 즉 각포에는 법소를 그 아래 도소를 두었다. 이원팔의 관동포 내에는 차기석의 홍천과 김치운의 인제에 각각 도소를 설치하였다.³⁹⁾ 이는 이원팔이 대접주로 있는 연원 관계는 원주를 중심으로 홍천, 인제를 포함하여 횡성, 영월, 양양, 강릉, 평창까지를 포함하는 강원도 전역에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소는 해월 최시형이 있는 대도소와 상호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법소의 주요활동은 주로 교인의 교화를 위한 강론을 가졌다. 즉 해월 최시형은 각포 도접주로 도강장을, 부접주로 부강장을 겸하게 한 후 매일 한 차례씩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개강하여 의난문답의 구절을 부강장이 이를 수합하여 도강장에게 보고하였다. 도강장은 이를 법소에 전보케 하였으며 또 4개월 마다 각포의 도강장이 관내 교인에게 강연하도록 하였다.⁴⁰⁾ 이를 통해 교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을 확대시켜 갔다.

이로써 볼 때 1890년 이후 강원도의 동학은 원주를 중심으로 유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학 조직은 1894년 강원도 각지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서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차기석은 자신의 관내인 풍천, 평창, 영월, 정선 등지의 동학군과 연대하여 강릉을 점령하기려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명의 관동포 대접주 이원팔은 해월 최시형이 기포령에 따라 원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청산 문바위골의 향하였다. 이곳에서 손병희의 중군에 편성되어 공주 우금치 전투를 비롯하여 보은 종곡전투에 참여하였다. 『토비대략』에 의하면 이원팔이 종곡전투에서 임국호, 김군오, 정대춘 등과 포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이원팔은 종곡전투에서

36) 『원주시사』에 의하면 이원팔은 원주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주시사』(역사편), 원주시사편찬위원회, 2000, 502쪽)

37)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제2편, 1915, 14쪽; 천도교서, 『포덕 34년 3월 11일조; 강필도, 『동학도종역사』 제12장(갑오동학당혁명 급 일청교전), 1944.

38) 당시 포조직과 대접주(연원주)는 다음과 같다. 충의포 대접주 손병희, 충경포 대접주 임규호, 청의포 대접주 손천민, 문청포 대접주 임정준, 옥의포 대접주 박석규, 관동포 대접주 이원팔, 호남포 대접주 남계천, 상공포 대접주 이관영, 보은포 대접주 김연국, 서호포 대접주 서장옥, 덕의포 대접주 박인호, 김구포 대접주 김덕명, 무장포 대접주 손화중, 부안포 대접주 김낙철, 태인포 대접주 김기범(김개남), 시산포 대접주 김낙삼, 부평포 대접주 김석윤, 봉성포 대접주 김방서, 옥구포 대접주 장경화, 완산포 대접주 서영도, 공주포 대접주 김지택, 고산포 대접주 박치경 등이다.

39)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제2편 15쪽.

40) 『천도교서』, 『포덕 34년 12월조』

41) 『토비대략』 갑오년 12월 18일조; 『토비대략』,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410쪽.

살아남아 이후까지 활동하였다.⁴²⁾

강원도는 1871년 이필제의 영해교조신원운동⁴³⁾ 이후 동학의 중심무대였다. 그 가운데서도 원주는 1890년대 이후 강원도 동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1893년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2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원주접이 강원도 동학 조직의 중심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원주접의 대표자인 이원팔은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관동포 대접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관내인 홍천과 인제에 도소를 설치되었다. 이로써 원주는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이화경, 임순화 등이 기포하였고 홍천의 차기석과 연대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원팔은 해월 최시형이 기포령에 따라 청산 문바위골에서 동학군 본류에 합류하여 공주 우금치를 거쳐 영동의 용산전투, 보은의 종곡전투에 참여하였다.

1864년 이후 이경화의 포교로 시작된 원주지역의 동학은 20년 후에 전개된 1893년 3월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2백여 명의 교인이 참여할 정도로 조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주접 접주 이원팔이 관동포 대접주로 선임될 정도로 강원도 동학조직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이듬해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명기의 역할을 하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조선후기 사회의 모순의 나타나기 시작한 민란이 원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삼정 문란 중의 하나인 환곡의 폐단이 1885년에 전개된 원주민란의 요인이었다. 처음에는 정소활동으로 시작한 원주민란은 환곡 폐단의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폐단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창고의 색리들이 오히려 폭언으로 농민을 분노케 하였고 결국 살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창에서 시작된 원주민란은 영창, 사창의 면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족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주민란은 개항 이후 전개된 민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었다. 즉 1885년에 전개된 원주민란은 봉건질서의 사회적 모순을 바로 잡고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주지역의 동학조직은 1890년대 들어 강원도 동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중요 무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강원도는 1871년 이필제의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동학의 중심무대였다. 그 가운데서도 원주는 1890년대 이후 강원도 동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1893년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2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원주접이 강원도 동학 조직의 중심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원주접의 대표자인 이원팔은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관동포 대접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관내인 홍천과 인제에

42) 『조석헌역사』에 의하면, 이원팔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예포대접주 박회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1895년) 7월 20일에 정선 관동접주 이원팔이 장석으로부터 박삼암장(박회인)께 들어가 나(조석헌)를 바로 들어오게 하라는 분부를 전하고 해당지역의 노정리를 비밀리에 전해주었다.”(『조석헌역사』, 을미년조), “을미년 12월 7일에 삼암장, 이원팔씨, 김기태씨, 본인(조석헌), 주인 김우범 도합 5명이 출발해 석화갯 남은 것 4-5기를 가지고 출발하여 인제군 유목적 최영선씨 집에 도착했다. 주인 최씨가 선생주(해월 최시형)께서 었그제 어디로 행차하진 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조석헌역사』, 을미년조)

43)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교조신원운동으로 보는 측면(표영삼 등)과 조선후기 민란의 연장선에서 변란으로 보는 측면(장영민 등)이 있다.

도소를 설치되었다. 이로써 원주는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이화경, 임순화 등이 기포하였고 홍천의 차기석과 연대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원팔은 해월 최시형이 기포령에 따라 청산 문바위골에서 동학군 본류에 합류하여 공주 우금치를 거쳐 영동의 용산전투, 보은의 종곡전투에 참여하였다.

즉 1864년 이후 이경화의 포교로 시작된 원주지역의 동학은 20년 후에 전개된 1893년 3월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2백여 명의 교인이 참여할 정도로 조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주접 접주 이원팔이 관동포 대접주로 선임될 정도로 강원도 동학조직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이듬해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명기의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모순의 심화, 환곡의 폐단과 이를 통한 농민항쟁의 경험, 그리고 반봉건과 반외세를 기치로 한 동학과 결합은 원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원주지역 동학의 조직과 활동

강대덕(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

姜大德(독립기념관 학예연구관)

- I. 머리말
- II. 강원도 동학농민운동의 동기
 - 1. 19세기 역사상황과 농민운동
 - 2. 동학의 전파와 전개
 - 3. 동학농민운동의 원인과 계기
- III. 원주 동학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
 - 1.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활동
 - 2. 반동학농민군의 대응활동
- IV. 동학농민항쟁 이후의 동향
 - 1. 동학농민군의 동향
 - 2. 반동학농민군의 동향
-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후반 근대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조선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봉건사회 모순의 심화와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직면하여 정치·경제·사회·사상적인 면 전반에 걸쳐 해결하고자하는 과제를 수행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變革運動)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었다.¹⁾

1894년 동학농민운동(혁명·항쟁)은 의병활동(義兵活動), 3·1운동, 4·19,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²⁾ 오늘날 평등사상과 민주주의사회의 지평을 연 근대민족사의 큰 사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숙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강원도지역의 동학과 농민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³⁾ 이는 원주를 위시한 강원도 전 지역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에 본격적인 주요한 전투(戰鬪)의 장으로 진전됨으로써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 1) 19세기 후반 당시 국제정세와 근대화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국내적 상황은 봉건사회(封建社會)와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당면하고 있던 시기였다. 19세기 국내·외 정세에 의한 조선민중의 모순(矛盾)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삶의 모순을 느끼지만, 그 자체로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모순이 사상(思想)으로 전화(轉化)되고 정치·사회적 신념(信念)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변혁(變革)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역사용어인 '동학란·동학농민운동' 등으로 왜곡되어 왔던 과거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민족의 굴절된 과거사 진상 및 역사 바로세우기 과업의 큰 줄기를 성취한 것 이라고 정리하면서 미완의 혁명이었으나, 을미의병활동·3.1운동·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고 정립하고 있다.
- 3)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1차 봉기는 반봉건 투쟁이고, 2차 봉기는 항일전쟁(抗日戰爭)이었다는 일반적인 성격의 규정이 쉽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지역에 탐학(貪虐)과 수탈(收奪)이 적었거나 농민들의 저항의지가 약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동학의 조직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강원도를 상징하는 '높고 깊은' 땅의 형세(形勢)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교통이 불편했던 만큼 타 지역과 또는 지역 내의 정보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고 즉각적인 동반 봉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는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경상·충청·경기·황해·평안도 지역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⁴⁾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존연구는 특히,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특정 지역만을 강조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원도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중요성은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강원지역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는 전라지역과 충청지역에 비하면,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이 실시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인 성장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성과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사연구가 확대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강원도 원주지역 농민군 활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1차 농민전쟁과 전주화약 등에서 승리한 전라도 농민군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개혁 후퇴, 타지역 농민들의 새로운 활동분위기 형성, 집강소(執綱所)가 설치지역의 농민군 소식 강원도 지역 전달, 친일내각 수립으로 내정간섭(內政干涉), 정부 개혁의지 약화,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폐정개혁(弊政改革) 요구 등 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심화로 농민항쟁을 통한 투쟁의 경험과 동학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들의 조직적 결합 등을 배경으로 강원도 각 지역 농민들의 투쟁에 고무된 원주지역과 함께 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인제·강릉 등 타 지역 농민들과 같이 1894년 여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강원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연구에 있어서는 1978년 서울대 한우근 교수의 논문을 시작으로 박맹수, 박준성, 정은경, 원영환, 이기원 등의 논문에서 동학과 농민혁명의 배경, 강원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 동학농민전쟁 이후의 동향 등을 밝혀주고 있다.⁶⁾ 결국은 일본의 우세한 무력적 진압(鎮壓)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으나, 동학농민들의 주장은 그 후에 민족의 항일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4)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 논문이 참조된다.

- 韓祐勳,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 - 江原·黃海道의 경우 -」, 『韓國史論』 4,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78.
 배항섭, 「강원도에 서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 『역사비평』 계간 11(1990년 겨울), 역사문제연구소, 1990.
 박준성, 「강원도 농민전쟁의 흐름」, 『동학농민전쟁 역사기행』, 여강출판사, 1993.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 역사비평사, 1995.
 朴孟洙, 「강원도지방의 동학비밀포교지에 관한 연구」, 『춘주문화』 10, 춘천문화원, 1995.
 李基遠, 「강원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연구」, 『江原史學』 15·16, - 雲霞金奎皓教授停年紀念論叢 -,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0.
 元永煥, 「강원도 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강원문화사연구』 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0.
- 5)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전쟁)과 관련된 성과물은 1995년 '사단법인 동학농민기념사업회'가 편찬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 변동」과 '한국역사연구회'가 편찬한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리는 학술연구를 5개년 사업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하여 결과물을 1991년 7월부터 97년 2월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까지 간행하였다.
- 6) 강대덕, 「강원지역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원지역사연구』 창간호, 강원발전연구원, 2005. 의하면, 강원도 지역 동학관련 연구업적으로는 韓祐勳,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 - 江原·黃海道의 경우 -」, 『韓國史論』 4,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78 ; 朴孟洙, 「강원도지방의 동학비밀포교지에 관한 연구」, 『춘주문화』 10, 춘천문화원, 1995 ;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 역사비평사, 1995 ; 元永煥, 「강원도 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강원문화사연구』 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0 ; 李基遠, 「강원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연구」, 『江原史學』 15·16-雲霞金奎皓教授停年紀念論叢,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0. 등이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 동학농민항쟁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은경(鄭銀景)의 「1894년 강릉부(江陵府)에서의 향회(鄉會)운영과 참여세력의 동향」이 있다. 1894년 당시 강릉부(江陵府)를 침입하려 했던 농민군 세력은 9월 3일 충청도 제천·청주 등지의 농민군과 9월 4일 강원도 영동지역의 영월·평창·정선 등지의 농민군이 모여 수천 명의 군세로 강화된 농민군은 강릉부 관문이었던 대관령(大關嶺)을 넘어 구산역(丘山驛)을 거쳐 9월 4일 강릉부 부사(府使)가 바뀌는 기회를 엿보아 일제히 읍내에 들어와서 삼정(三政)⁸⁾을 바로 잡을 것을 기치로 내 걸고 관아(官衙)를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주된 공격대상은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재지사족층(在地士族層)과 요호(饒戶), 향좌수(鄉座首) 등의 향임층(鄉任層)과 각 면리(面里)의 집강(執綱), 면임(面任) 등의 지방 유력층이었다. 이들 농민군 타도 대상이었기 때문에 반농민군의 주축세력을 이루었다.

강릉부 재지사족층은 반농민군(反農民軍)의 주요적책을 맡는 실질적인 지도세력으로 대두되었던 반면에 좌수(座首) 등의 향임층은 향회(鄉會)를 개최 주도하여 반농민군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각 면리임을 통제하여 병력을 확충하는 등의 농민군 진압책(鎮壓策)의 실행을 담당하였다. 강릉부 향회의 주요 기능은 요호층의 재정을 끌어들이어 반농민군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농민군의 피해를 면하고자 반농민군에 동조하였던 요호층은 또다시 반농민군의 재원(財源)마련이라는 명분아래 수탈(收奪)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1894년 동학농민항쟁 때 강릉부 향회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갑오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강릉부 향회에서는 재지사족 등의 유력층 주도로 강력한 통제력을 띤 반농민군의 결집기반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강원지역은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의 격렬한 저항이 벌어졌던 곳이며, 이는 강원도 지역이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과 항일의병운동(抗日義兵運動)의 본거지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서울대 한우근 교수께서 처음으로 이용한 『동비토론(東匪討論)』과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타자료들을 간헐적으로 이용되었다.⁹⁾

본고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에 대한 지역사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강원도의 수부(首府)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지방 전 지역에서 전개한 동학농민군의 활

7) 鄭銀景, 「1894년 江陵府에서의 鄉會운영과 참여세력의 동향」, 『同大史學』 1, 동덕여대 국사학과, 1995.

8) 조선 후기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백성으로부터 수취한 전결세·군역·환곡을 중심으로 한 조세운영 과정의 일반을 일컫는 말이다. 18세기말 19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부세제도의 운영 역시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삼정문란(三政紊亂)은 세정운영상의 부조리에 연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그 폐단은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은 과도한 부세에 의해 수증의 잉여분조차 착취당하고 있었고 차후 적극적 운동방식인 농민항쟁과정에서 대부세(對賦稅) 투쟁에 동참하고 있었다.

9) 『東匪討論』은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전투상황 관련 기록문서 관첩(官帖), 전령(傳令), 감결(甘結) 등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이 자료는 1894년 9월 8일(음력 8. 9.)부터 1895년 3월 9일(음력 2. 13.)까지 강릉부에서 농민군 진압에 나선 토벌군과 각 고을, 순영과 중앙관사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수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평창·정선 등지의 농민군 활동상과 평창 봉평, 홍천 내면의 농민군 차기석(車箕錫)과 소모군관(召募軍官) 강위서(姜渭瑞)의 전투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이에 대한 반농민군의 진압활동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臨瀛討匪小錄』은 강릉부사와 관동소모사가 되어 농민군 토벌을 지휘했던 이회원(李會源)의 관련기록이다. 주요내용으로 앞부분에 동학이 사설(邪說)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강원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소모관의 활동 등을 1894년 8월부터 11월까지 농민군의 동향과 토벌군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동비토론(東匪討論)』과 함께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동향과 이에 대한 진압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두 자료 원문은 강릉시 운정동 선교장(船橋莊; 속칭 배다리; 주인 李會源의 후손 李康隆)에 소장되어 있다.

등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배경과 발발(勃發) 계기(契機)가 된 직접적인 동기, 농민군의 활동 전개과정을 새롭게 살펴보면서 원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조직, 반농민군의 대응 양상 등을 재구성하여 원주 동학농민군의 투쟁정신(鬪爭精神)이 강원도 지역의 민족운동 또는 변혁운동(變革運動)의 출발로서 항일 의병투쟁(義兵鬪爭)과 식민지(植民地) 독립운동(獨立運動)에서 어떻게 담당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강원도 동학농민운동의 동기

1. 19세기 역사상황과 농민운동

19세기 후반 개화운동(開化運動)과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농민 사이에 번지고 있던 전통사회의 모순에 대한 반발은 전통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농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발전한 동학을 매개로 하여 1894년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의 혁명적 농민봉기로 영월·평창·정선과 함께 강릉·홍천·인제 등지에서 격렬하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침략해 오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도 동시에 포함되었다. 전통사회의 제도개혁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이들 농민의 움직임은 그동안 내부로부터 점증되어 오던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역사적 흐름의 표현인 것이었다.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 못지않게 그 사건이 전개된 지역의 특징을 밝혀야 한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환경은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다. 비록 시간만큼 다양하고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공간적 조건은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성격과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⁰⁾

동학농민운동 혹은 동학농민전쟁은 한국근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으로 연구결과 최소한 '동학난(東學亂)'이라는 평가는 벗었으며, 전라도 고부(高阜)지역에 한정된 국지적인 민란(民亂)이었다는 제한된 시각도 새로운 역사인식으로 동학농민운동(전쟁)은 한국근대사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되고 있다.¹¹⁾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전쟁)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그 역사적 의의가 높이 평가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강원도지역 원주의 실제적인 사건에 구체적인 모습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간 강원도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사태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연구의 축적이 미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촌사회의 세력관계와 농민층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에서 향촌사회의 세력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첫째는 농민군 지도부, 즉 농민층을 동원하여 농민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도세력의 성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군에 반대하여 반농민군을 형성했던 향촌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것이다.

10) 박명규,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13쪽.

박명규 교수는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라는 논문에서 공간적 조건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지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간적 위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공간은 그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인 것이어서 자연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에 결부되어 역사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1) 박명규, 위의 글, 14쪽.

강원도지역 농민항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농민항쟁보다 30여년 앞서 1862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0여 개 고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어느 고을 한곳에서도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876년 개항이후 안팎으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강원도에서는 사정이 달라져갔다.¹²⁾

개항이후 지주제 강화와 농민층의 광범위한 몰락(沒落), 외국상품의 유입에 따른 지배층의 소비욕(消費慾) 증대, 그를 채우려는 탐학(貪虐)과 수탈(收奪) 증대가 사회적 모순(矛盾)으로 심화되면서 강원도의 농민들도 이에 저항하여 빈번하게 농민항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종 정치적,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 시기 다른 지방의 항쟁 소식은 강원지역 항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로 1885년부터 잇단 농민항쟁이 발생했던 것이다.¹³⁾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일어난 강원도 농민항쟁의 주된 원인은 삼정(三政)의 폐단과 수령(守令)·이서(吏胥)·토호(土豪) 등의 수탈과 탐학이었다. 이 시기 강원도에서는 1885년 3월 원주목에서 1889년 1월 정선군·인제군·흡곡현, 3월 통천군, 그 해 여름에는 낭천현(狼川縣, 1902년 현 화천군으로 개칭), 1891년 6월 고성군, 1892년 3월 낭천현, 1893년 12월 금성현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그 주원인은 원주목에서는 환곡(還穀)¹⁴⁾의 폐단이 정선군에서는 군수·도사령·향인·외지인의 불법적 탐학과 광산의 폐단이, 인제에서는 군수와 이향의 불법 탐학이, 흡곡에서는 현감과 이방(吏房)의 불법 탐학이, 통천은 이서(吏胥)들의 환곡폐단과 남징(濫徵), 낭천은 호역(戶役)의 불균등과 간향(奸鄉)·활리(猾吏)¹⁵⁾의 환곡폐단, 고성군은 경거인·중·간민의 평민 토색과 군정(軍政)의 문란(紊亂), 1892년 3월 낭천은 현감의 불법자행, 금성은 간향·활리와 현감의 탐학 등이었다.¹⁶⁾

12)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196쪽.

13)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으며 평야가 부족한 산촌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지역의 백성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하고 빈곤했다.(『承政院日記』, 高宗 3年 6월 3일조, 16年 8월 20일조 참조)
(議政府啓曰, 卽見前江原監司朴承輝所奏, 則以爲麟蹄·平昌兩邑舊逋, 癸亥蒙蕩, 爲五萬餘石, 而數尙爲四萬餘石, 曾未幾年, 又爲添耗還逋, 各穀六萬五千石零, 折米爲三萬石之多, 若無格外更張之舉, 當至無邑民之境, 請令廟堂稟處, 而批旨依爲之事, 命下矣. 如〈邑〉斗小去處還逋之至於此多, 孰使之然也? 朝夕岌岌之勢, 諒匪細憂, 其如何措劃, 如何變通? 令新道臣, 爛加探察, 務存商確, 使之論理報來, 以爲稟處之地, 何如? 傳曰, 允)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인제·평창지역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환곡 문제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심각하게 다룰 만큼 절박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강원지역의 농민항쟁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때론 무리한 논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즉 1862년 강원지역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지리적 여건과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이유로 하여 지주제·신분제의 모순과 삼정문란 등을 둘러싼 지배층의 탐학과 수탈 등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했던 지역으로 보고 강원도지역에서 1862년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준성, 앞의 글, 196쪽.)

14) 조정에서 비축해두었다가 춘궁기(春窮期)에 농민에게 빌려주고, 가을 추수 뒤에 거두어들였던 곡물로써 환자(還子)·조적(糶糶)이라고도 한다. 19세기에 들어서 세도정치가 나타난 뒤로 환곡은 정치상의 문란과 겹쳐져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창고에 남아 있던 환곡은 진휼(賑恤)에만 쓰도록 하고, 환곡이 맡았던 조세기능은 토지 1결(結)당 결전(結錢) 2냥씩을 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파환귀결은 바로 취소되어 실천되지 못했다. 고종대에 들어 흥선대원군(1820~1898)에 의해 환곡의 일부를 별비곡(別備穀)이라 하여 면리 단위로 운영하는 사창제(社倉制)가 시행되었으나 고리대(高利貸)라는 원칙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1862년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 때 환곡의 문제가 농민들의 요구조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민항쟁의 수습책으로서 환곡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15) 지방 고을의 간악(奸惡)한 향임(鄕任)으로 향 좌수(座首)나 별감(別監)과 교활(狡猾)한 아전(衙前)을 지칭하여 이르던 말이다.

16) 김양식, 「고종조(1876~1893) 민란연구」,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한국사의 이해』 근현대편, 1990.

1862년 농민항쟁에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봉기를 주도한 세력은 대체로 농촌지식인, 몰락양반, 재지명망가들 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자에 능하고 시세에 밝은 농촌지식인 이었고 이향층(吏鄕層)도 일부 참여했다.¹⁷⁾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을 살펴보면 농민군의 활동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동력은 신분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던 하층민농들의 불만과 현실부정의지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이들의 힘을 결집해 내고 조직화된 농민항쟁으로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도부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이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종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 시기 다른 지방의 항쟁 소식은 강원지역 농민항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로 1885년 3월부터 원주를 위시하여 잇단 농민항쟁이 군·현단위의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농민항쟁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2. 동학의 전파와 전개

강원도지역 농민항쟁의 배경과 함께 강원도에 내재한 봉건적 모순과 더불어 일찍부터 동학이 전파되고 확산되었다. 동학의 전파는 반봉건투쟁을 이끌 수 있는 조직체를 제공하였다. 강원도지역에 최초로 동학이 포교되는 계기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 初名 福述·扑術·濟宣)¹⁸⁾와 함께 체포되었던 이경화(李慶化)가 영월로 정배(定配)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1864년 3월 무렵 정배된 영월 소밀원을 중심으로 동학을 포교(布教)했다.¹⁹⁾

이후 강원도 영월과 정선지역은 관아의 지목을 피하여 피신과 잠복을 거듭해야 했던 동학교단의 지도자와 교도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으며 조직의 복원과 교세확장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영월의 직동과 소밀원, 정선 고한의 정암사와 적조암 무은담이 동학 재건의 중심지였고 동학교단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1870년대 후반 동학교단은 영월, 정선 등 영서지방의 비밀 포교지를 중심으로 교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1880년 5월에는 인제 감둔리에 각판소를 설치하고 한 달가량 작업을 벌여 『동경대전(東經大全)』 100권을 간행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같은 인제 천동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였다.²⁰⁾

17) 이러한 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가는 여전히 이룬이 많은 부분이다. 신승하는 이들을 '상승하는 양인층'이라 불렀고, 이이화는 '향반·중소지주·농촌지식인'이 농민군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영우와 박맹수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농민군 지도자가 상당한 학식과 재산을 지닌 층에서 배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박명규, 위의 글, 31~32쪽.)

18)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한 1861년(철종 12) 6월 동학에 입교했다. 한달에 3, 4차례씩 최제우를 찾아가 설교를 듣고 의범(儀範)을 배웠으며 집에 있을 때는 명상과 극기로 도를 닦기에 힘써 한울님의 말씀 듣는 등 여러 가지 이적(異蹟)을 체험했다고 한다. 1862년 3월 최제우로부터 포교에 힘쓰라는 명을 받고 영해·영덕·상주·홍해·예천·청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863년 7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었고, 8월 도통을 이어받았다. 그해 12월 최제우가 체포되자 관헌들의 눈을 피해 옥바라지를 하다가 최제우의 명교(命敎)를 받고 태백산·안동·평해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1864년(고종 1) 3월 최제우가 처형되자 다음해 1월 평해에서 울진으로 거주를 옮겨 최제우의 부인과 아들을 보살폈다. 같은 해 6월 영양으로 이사한 후 수도에 힘써 1년에 4차례씩 49일간 기도했으며 <동경대전·東經大全>·<용담유사 龍潭遺訓>를 의위 받아쓰게 하여 교도들에게 전했다.

19) 1869년 3월에도 동학 2세 교주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양양지방을 순방하여 포교활동을 벌였으며 1871년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좌절로 인해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의 지도부가 영양 일월산 용화동으로부터 강원도 영월 소밀원 및 직동으로 피해음으로 해서 강원도의 동학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박맹수, 「강원도 영월 정선 지방의 동학유적지」, 『新人間』 507, 신인간사, 1992, 47쪽.)

20) 박맹수,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계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평등사회를 꿈꿨던 동학농민군들은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농민의 삶은 더욱 악화 되었다. 쌀의 유출로 식량가격이 높아지고 면제품 수입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외세의 침략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관리들의 대응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재정부족을 빙자한 관리들의 수탈은 갈수록 심해졌다. 고통(苦痛)스런 농민들의 삶 속으로 새 세상을 염원(念願)하는 종교(宗教)인 동학(東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름 없는 민중과 변혁을 열망하던 지식인층이 동학 안에 서 만나며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대규모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동학농민운동의 봉기를 이끈 대표적 지도자는 전봉준(全琫準; 1855~1895)²¹⁾이었다. 1894년 3월에는 낡은 정치질서를 깨뜨리기 위해 1894년 9월에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대규모 농민군(農民軍)을 조직했다. 평등사회(平等社會) 실현(實現), 자주적인 국가를 꿈꾸던 농민봉기(農民蜂起)는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낡은 질서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들의 투쟁은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서남부 평야(호남평야) 지대에서 먼저 일어나 중남부(충청도)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요청받은 청(淸)과 자국민(自國民) 보호(保護)를 구실로 조선(朝鮮) 점령(占領)을 계획한 일본이 조선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는데 이 전쟁이 청·일전쟁(淸·日戰爭)이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勝利)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반일(反日) 세력이 될 농민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농민전쟁이 한창이던 때 농민군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정책의 사례로 "노비문서(奴婢文書)를 불태우라"라고 주장하면서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죄목을 조사하여 엄히 징계(懲戒)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횡포한 양반(兩班), 부호(富豪)를 처벌하며, 토지(土地)는 고루 나누어 경작(耕作)한다."라고 하였다. 농민들의 신분에 따른 성(性), 즉 남성(男性)·여성(女性)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국가가 인민백성을 수탈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崔濟愚; 1824~1864, 號 水雲)는 여자 노비(奴婢) 즉 비(婢) 2명을 해방시켜 하나는 며느리로, 다른 하나는 딸로 삼았다. 그 뜻을 이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 號 海月)은 "여성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쳤다.

1880년대 이후 강원도지역에서 동학의²²⁾ 조직과 활동이 어떠하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1893년(癸巳) 음 3월초 보은 장내리에서 열린 교조신원운동에 강원도에서도 관동대접주(關東大接主) 이원팔 등이 참여했으며,²³⁾ 여기에 참여했다가 4월 초(2~3일) 장내리에서 해산하여 돌아간 농민들 가운데에는 강원도 원주접(原州接)²⁴⁾ 200명도 4월 2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서 다음 3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퇴귀자(退歸者)에 포함되어 있었다.²⁵⁾ 이를

21) 전봉준의 입도(入道)시기에 대해서 1885년설, 1888년설, 1890년설, 1892년설 등이 있으나, 『공초(供招)』에서 전봉준 스스로는 1892년부터 동학(東學)에 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2) 1880년대 후반에 재기한 동학을 가혹하게 탄압하던 관리들을 피하여 해월 최시형 등 동학의 지도부는 다시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최시형은 헌신적인 강원도의 교도와 고산준령이 동학의 곁에 있으므로 인하여 동학 교문은 지난(至難)한 시절을 이겨내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였다.

23)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壺, 454쪽.

24) 동학교단 자료를 보면, 원주에서 이화경(李和卿)·임순화(林淳化 또는 林淳瀾), 횡성에서 윤면호(尹冕鎬), 홍천에서 차기석(車箕錫)·심상현(沈相賢)·오창섭(吳昌燮) 등이 기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東學軍再度學事』, 『東學史』; 「갑오운동」, 「천도교창건사」 제2편 제7장; 「천도교회사 초고」, 『동학사상자료집』 1, 463쪽.; 「甲午東學亂」, 361쪽; 박준성, 앞의 글, 200쪽. 참조)

25) 「聚語」, 『東學亂記錄』 상, 국사편찬위원회, 1894년 4월 초3일, 124쪽.

"...북면(北面) 구치(九峙)의 장리들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이 달 초 2일 신시부터 초 3일 사시까지 동학의 무리로서 돌아간 사람은 경기 수원접(水原接) 840여명, 용인접(龍仁接) 200여명, 양주(楊州)와 여주(驪州) 등

보면 1880년대 이후에도 강원도에서 동학의 활동은 계속되었으며, 조직도 유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학 조직은 1894년 강원도 농민항쟁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는 주요한 조직기반이 되었다.²⁶⁾

3. 동학농민운동의 원인과 계기

강원도 동학농민항쟁의 원인이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세력으로부터 지방수령(地方守令)과 아전(衙前) 이서배(吏胥輩)들에게까지 이르는 관리들의 탐학(貪虐), 삼정(三政)을 중심으로 한 부세수탈, 즉 삼정문란은 1894년 강원도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항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제1차 동학농민항쟁과 전주화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승리한 전라도 농민군의 활동 경험, 정부의 개혁의지 약화, 타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새로운 활동 분위기 등 이었다. 그리고 집강소(執綱所)가 설치된 지역의 동학농민군 항쟁소식 강원지역 전달, 정부의 친일내각 구성 수립으로 내정간섭(內政干涉)과 개혁의지 약화,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폐정개혁(弊政改革) 요구 등 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의 수습책으로 실시된 정부의 개혁정치에 대해서도 각지의 농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일본이 조선에 친일내각을 세워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8월 들어 정부의 개혁의지는 점차 약화되었다. 각 지방에서도 개혁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8월 10일경에는 6월 28일 제정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의안 가운데 농민군이 요구한 '반상(班常)의 등급을 혁파(革罷)한다'는 조항은 관리를 등용할 때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는다'로 '공사(公私)노비(奴婢)를 일체 혁파한다'는 조항은 '압량위천(壓良爲賤)하여 세세위역(世世爲役)을 금지한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지배층의 욕심으로 외세(外勢)가 조선(朝鮮) 땅에 들어왔다고 인식하고 지배층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각지에서 농민들은 계속 폐정개혁안을 요구하였고 그 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지방 양반과 부민들에 대한 투쟁도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²⁷⁾

일본군에 대한 투쟁도 활발해 지면서 8월 22일 충주(忠州) 가흥 주민들이 일본군의 인부 모집에 불응하였고, 8월 24일에는 안동에서 3,000여명의 반일의병이 일어났다. 8월 29일에는 문경에서 농민군 600여 명과 일본 공병대 25명이 접전하여 농민군 2명이 희생당했다. 또 태봉 일본 병참부를 지원하려고 파견된 충주 주둔 일본군 공병대 병력과 농민군이 석문리에서 싸움을 벌였다.²⁸⁾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농민항쟁을 통한 투쟁의 경험, 동학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조직적 결합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각지의 농민들이 동학농민항쟁에 고무된 강원도 지역의 농민들도 1894년 여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사람이 270여명, 안산접(安山接) 150여명, 송파접(松坡接) 100여명, 이천접(利川接) 400여명, 안성접(安城接) 300여명, 죽산접(竹山接) 400여명, 강원도의 원주접(原州接) 200여명, 충청도 도내의 청안접(淸安接) 100여명, 진천접(鎭川接) 50여명, 청주접(淸州接) 290여명, 목천접(木川接) 100여명, 중간 셋길로 원평(院坪)으로부터 충주(忠州)로 향한 사람이 1,000여명인데, 이들이 사는 지방은 탐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6)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198쪽.

27) 김용민, 「2차 농민전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180~189쪽.; 박준성, 위의 글, 198쪽.

28) 김용민·송찬섭, 「1894년 농민전쟁 일지」, 「역사학연구」 2, 역사학연구소, 1993, 197~200쪽.

III.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

1.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활동

강원지역에서 동학농민항쟁에 참여했던 동학교도의 참여현황은 강릉부의 『동비토론(東匪討論)』·『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을 분석해 보면, 대접주(大接主) 이원팔(李元八), 최맹순(崔孟淳), 김치운(金致云), 차기석(車箕錫) 등 4명이며, 접주(接主)로서 참여자 수는 오덕보(吳德甫)를 위시하여 15여명이고, 접사(接司) 심성숙(沈成淑) 등 5명, 성찰(省察) 오덕현(吳德玄)과 김성칠(金成七, 혹은 星七; 蓬坪 金順卜의 아들) 2명, 교장(教長) 라모씨(羅某氏)와 도금찰(都禁察) 김흥조(金興祚), 동학도(東學徒)로는 심상현(沈相賢) 등 20여명으로 총 50~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²⁹⁾

다음은 강원지역 동학농민항쟁시 농민군 참가자 중에서 지역의 유력층이 참여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평창의 전 좌수(座首) 이치택(李致澤), 진사(進士) 박재회(朴載會; 평창)·이동익(李東益; 강릉 임계)³⁰⁾·박재호(朴在浩; 강릉), 권지관(權地官), 삼척의 황찰방(黃察訪), 정선 여량의 지왈길(池曰吉)찰방, 홍천부농(富農) 최도열(崔道烈)³¹⁾, 집강(執綱) 박석원(朴碩元)·지덕화(池德化), 등 향촌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일부 유력층이었으나 점차 그 지위가 약화되어 갔고 이러한 불만 속에서 동학농민항쟁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번 달(9월; 필자주) 4일에 평창의 전 좌수 이치택(李致澤), 이름을 알수 없는 권지관(權地官), 진사 박재회(朴載會), 영월의 이름을 알수 없는 나교장(羅教長), 삼척(三陟)의 황찰방(黃察訪), 정선(旌善)과 여량역(餘糧驛)의 지왈길(池曰吉), 본 관아 대화면(大和面)의 김상오(金相五)·공계정(孔啓正)·김순길(金順吉)·손영팔(孫永八) 등이 동학을 칭하면서 영월·평창·정선 등의 3개 읍에서 수천여명을 이끌었습니다.³²⁾

결국, 강원지역 동학농민항쟁에 참여하여 활동했던 계층은 농민군과 동학교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극히 일부의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유력층이 가담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지배층

- 29) 갑오년(甲午年) 9월 그믐(九月晦間)이라 이화경(李和卿)은 원주(原州)에서 기병(起兵)하고 윤면호(尹冕鎬)는 횡성(橫城)에서 기병(起兵)하고 심상현(沈相賢)은 홍천(洪川)에서 기병(起兵)하였다. (『南北調和』, 『東學史(草稿本)』, 『東學史』; 참조.) 보은집회 때는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임순화(林淳化), 횡성에 윤면호(尹冕鎬), 홍천에 심상현(沈相賢)이 참석하였다. (『報恩會集』, 『東學史(草稿本)』, 『東學史』; 참조.)
- 30) 임계면 집강과 방수대장 및 경내의 존위 두민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臨溪面執綱防守隊長及地境尊位頭民]을 보면, "실정에 따라 보고할 일이다. 본면에 사는 이동익(李東益)은 지금 잡아서 쏘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집의 가계도구와 전답문서는 일일이 찾아내어 적어서 보고하라. 만약 혹시라도 남기거나 빼는 폐단이 있으면 나중에 조사하여 그 일이 드러나는 날에 해당 임장과 방수대장을 모두 잡아다가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 유념하여 거행해서 사사로움을 따르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1894년 12월 19일" 동학군의 주요인물에 대하여 수사(搜查)하고 압수(押收)하라고 하였다. (『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462쪽.)
- 31) 최도열(1860~1894)의 본관 전주(全州), 자는 성화(聖化), 강원도 홍천에서 농민군에 참가했다가 1894년 10월 23일 홍천군 서석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투쟁을 전개하던 농민군들 가운데 한 세력이 10월 13일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을 들이쳐서 건물을 불태웠다. 보수 지배세력은 농민군에 대해 적극 반격을 개시하였는데, 경기도 지평의 감영 맹영재(孟英在)는 포군을 이끌고 홍천의 농민군을 향해 진격해왔다. 이에 맞서 농민군은 10월 21일 맹영재 부대와 장야평[장평]에서 전투를 벌이고 서석으로 후퇴하였다. 서석에서 후퇴한 농민군은 풍암리 구룡 위에다 진을 쳤다. 다음날 10월 22일 서석에 집결한 농민군은 횡성 현감 유동근이 이끌고 온 관군과 맹영재가 이끌고 온 민보군에 맞서 8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는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 32) 『留鄉座首爲牒報事』, 『東匪討論』 137~140쪽.; 『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399쪽.

의 탐학(貪虐)과 수탈(收奪) 증대가 사회적 모순(矛盾)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사회(平等社會) 실현, 자주국가(自主國家)를 꿈꾸던 이상향(理想鄉) 건설, 신분지위(身分地位) 상승이 좌절된 데 대한 반감 등으로 농민봉기가 발발(勃發)되었던 것이다.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상세한 활동을 반동학농민군의 토벌자료인 『동비토론(東匪討論)』에 의하면, 1894년 9월 초8일(양, 1894년 10월 6일) 강원감영(江原監營)의 지시에 의한 동학(東學)의 조직과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在營 九月初八日]

"1894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먼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동학(東學)의 이름을 내걸고 일어났다. 본도(本道), 강원도(江原道)의 원주(原州)·영월(寧越)·평창(平昌)·정선(旌善) 4개 읍도 점점 그 피해를 입어 종종 동학의 접(接)을 설치하는 곳이 있게 되었다. 동학도는 겉으로 학(學)을 숭상(崇尚)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재물(財物)을 탈취(奪取)하려고 했으며, 몇 달만에 그 무리가 번성하여 곧바로 세상을 뒤덮으니 참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1894년 9월 4일에 영월과 평창, 정선 등 5개 읍의 동학의 무리 수천 명이 부사(府使; 江陵大都護府使 : 필자 주)가 바뀌는 때를 엿보아 일제히 읍내에 들어와서 삼정(三政)을 바로잡을 것을 사칭하고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그래서 우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연유를 공형(公兇)이 문장(文狀)으로 감영(監營)에 보고하였다. 그 보고에 대한 회제(回題)에서 말하기를, "삼정(三政)을 고르게 하는 것은 어찌 백성의 말을 기다려서 바로잡겠는가? 반드시 즉시 달려가서 조사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겸관(兼官)에게 알려 보고하라"고 하였다.³³⁾

이와 같이 1894년 제1차 동학농민항쟁이 전개될 때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농민군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집강소기(執綱所期)라고 할 수 있는 1894년 8월부터 강원도에서도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9월 초순에는 강릉부(江陵府) 관아(官衙)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11월까지 농민군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³⁴⁾

강원감영(江原監營)에서 백성들이 올린 소지(所志; 訴狀, 請願書, 陳情書)에 대한 1894년 9월 16일 처분(處分)인 데김(題音; 題辭)을 보면 조직체(組織體)로 동학의 접소(接所)를 설치하여 동학농민군의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도(東徒; 東學農民軍 : 필자 주)가 무리를 모아 접(接)을 설치하여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는 것이 어찌 재물을 빼앗고 마을을 침탈하는 것뿐이겠는가? 심지어 관부(官府)를 위협하고 군기를 탈취하는 따위의 못할 것이 없다는 소문은 이미 들렸다. 그 못된 악습을 살펴보면, 다만 화적(火賊)을 다스리는 형률(刑律)로만 헤서는 안 된다. 지금 백성들의 의거(義舉; 東學農民軍討伐 義旅 : 필자 주)는 매우 가상하다. 바로 그 사실과 의거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히 조사하여 급히 보고하고 특별히 단속하여 저들이 경내에 들어와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³⁵⁾

라고 하였다. 1894년 8월 20일(양력 9월 19일) 동학농민군들이 강릉부 대화면(현 평창군)에 들어가 김장수(金長水)의 가사(家舍)를 훼손하고 그 집안의 증물(汁物)을 탈취하였고 이들은 강릉을 향해 대관령(大關嶺)을 넘어 강릉부(江陵府) 관아(官衙)로 진격한다고 큰 소리쳤다.³⁶⁾

영서의 동학농민군들은 큰소리로 " 강릉의 어떤 부자집은 우리를 위해 술을 빚고 소를 잡아 저장

33) 「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389쪽.

34) 박준성, 앞의 글, 194쪽.

35) 「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391쪽.

36) 「臨瀛討匪小錄」, 「叢書」 12, 369쪽.; 「臨瀛討匪小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4부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토벌자료, 471쪽.("8월 20일쯤에 본읍의 대관령 서쪽 대화면(大和面)을 침범하여 김장수(金長水)의 집을 훼손하고 그 집의 가사와 집기를 탈취한 뒤에 대관령을 넘어 간다고 큰소리쳤다. 이 때 본읍 수령은 비어 있어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고 일은 통솔이 되지 않았으며, 아전과 군교(軍校)들은 간이 오그라들고 촌민들은 입을 다물었다. 한두 사람이 모의하여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무리가 마을에 퍼져있는 것을 알고 보복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마을의 아래위 어디에도 전혀 방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하여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선교(船橋)의 이 아무개(前 承旨·江陵人都護府使 李會源; 필자 주)는 우리를 해치려고 창검(槍劍)을 집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가 이에 대해 해명하기를 "선교에서 창을 검열하는 것은 다른 도둑을 방비하려는 것으로 결코 다른 뜻이 없다"라고 하였다.³⁷⁾

관군의 치밀한 협공작전으로 이미 대접주 차기석은 체포되고 오현덕, 박석원 등도 함께 체포되어 포살되었다. 12월 중순경 영월·평창·정선의 동학농민군이 삼척방향으로 퇴산하게 되었다.

홍천 종사관 허경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洪川從事官許峒]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지금 본 관아의 종사관 박동의의 보고를 받아보니, "내면 비도의 괴수 차기석 등 3명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상쾌하였다. 이것은 본진(本陣)이 합세하여 협공한 덕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매우 가상하다. 그 밖의 나머지 무리도 남김없이 섬멸하여 후환을 없애고 특별히 뒤를 밟아서 일일이 체포하여 없애버리도록 하라. 1894년 11월 16일³⁸⁾

내면 행진소의 종사관들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內面行陣所諸從事官]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 "지덕화(池德化)는 다시 잡아들여 문초를 하고 박석원·오덕현과 함께 바로 쏘아 죽였으며 그 나머지 9명은 문초를 한 뒤에 개고기를 나누어 먹고 바로 정도(正道)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한다. 쏘아 죽이는 것과 정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에 관계되는데, 실제로 공평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약수포와 청두동(靑頭洞)으로 도망간 비도를 일일이 뒤를 밟아 잡아오는 일은 잘 헤아려서 거행하고, 본 면의 어리석은 백성이 이 겨울철에 편안하지 못하니 각별히 타일러서 생업을 안정시켜라. 이처럼 비도를 토벌한 뒤에 혹시 도망간 나머지 무리가 어두운 밤에 다시 침입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마을은 힘을 합쳐 잡아서 결박해 바치도록 엄중하게 두민(頭民)에게 타일러라. 차기석은 회군할 때에 데리고 와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1894년 11월 17일³⁹⁾

동학군의 잔당이 삼척의 상·하장면에 나타났으나 임계면의 진사(進士) 최윤수(崔允秀)가 반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이들을 토벌하였다. 또한 삼척 진영에는 동학농민군의 잔당을 찾아내어 체포하라는 관문(關文)이 전달되었다.

1894년 11월 26일 순사에게 첩보하는 글 [甲午十一月二十六日 牒巡使]

첩보한 일입니다. 본부 임계면의 요충지는 해당 면의 진사 최윤수(崔允秀)가 지키도록 잘 타일렀습니다. 정선군 여량의 비괴인 지왈길을 잡아서 이 달 25일에 바로 목을 베었고, 삼척 상하장면(上·下長面) 등지에 비도의 나머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최윤수를 보내어 모두 섬멸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 1894년 11월 26일 순사에게 첩보합니다.⁴⁰⁾

반동학농민군에 토벌당한 이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인명피해는 관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 봉평전투 : 윤태열, 정창호 등 13명 포살·효수
- 정선·여량 : 이중집(접사) 등 14명 포살
- 백운포 : 위승국(접주), 지왈길(접사) 등 17명 포살, 차기석 체포(19명 효유귀화)
- 청두리 : 권성오(홍천동학농민군 영수) 등 12명 포살
- 약수포·신배·응봉 : 김치실(접주) 등 11명 포살, 박학조 체포(60여명 효유귀화)
- 홍정·삼리 등지 : 임정호 등 38명 포살(100여명 효유귀화)

37) 「臨瀛討匪小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4부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토벌자료, 472쪽.

38) 「東匪討論」, 앞의 책, 435쪽.

39) 「東匪討論」, 위의 책, 436쪽.

40) 「東匪討論」, 위의 책, 446쪽.

결국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대적주로서 영수 차기석은 박학조와 더불어 체포된지 수일 후에 효수(梟首) 당하였다. 그러므로 호남지역의 동학농민군이 패산(敗散)되고 일본군의 호남 동학농민군의 섬멸작전(殲滅作戰)이 끝날 무렵에 강원지역의 동학농민군도 거의 같은 패산 상태에 이르렀다.

강원도 동학농민군이 거의 다 패산된 뒤에도 순무영(巡撫營)에서는 강릉대도호부사겸 관동소모사에게 후황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령을 내렸다.

소모사 강릉부사 이원희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召募使江陵府使李]

생도(生道)로 만물을 죽이는 것은 엄중하나 가혹하지 않고, 어지러운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관대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업신여긴다. 대숙(大叔)은 관대함으로 정(鄭)나라를 다스렸으나 도적이 그치지 않았으며⁴¹⁾ 제갈공명은 오히려 엄격함으로 촉(蜀)나라를 다스려서 백성이 편안해졌다. 어찌 위엄을 드러내어 안정시키지 않겠는가? 대개 조치가 다름에 따라 죄 있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이미 악을 저지른 뒤에 징계하고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를 제거해서 뿌리를 없애 남김없이 한 뒤에야 착한 선을 권장할 수 있고 평정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비도의 번고가 조금 수습되고 잔당들이 도망가서 숨었는데 중기에 비유하면 밖은 아물었으나 안은 끓은 것과 같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어떠한가? 죄가 강상을 범한 것에 관계되는 매우 흉악한 자는 모두 일일이 토벌하여 죽여서 후환을 없애도록 하라. 혹시라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자를 다치게 한다면 지엄한 군율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령이 도착하는대로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 후록 [後]

- ① 징계하여 토벌하는 것은 엄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죄가 있고 없고 간에 모두 그만두고 문초하지 않는다면 적은 도망갈 수 있고 민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 도망간 괴수는 완악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비록 위엄에 겁이 나서 숨었으나 나중에 반드시 사악함을 타고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다시 근심이 될 것이다. 동향(洞鄉)에서 모두 “죽일만하다”라고 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행적이 드러난 자는 모두 결박하여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 것
- ② 살육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명령을 받아 임시로 맡은 자가 함부로 처형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은데, 더욱이 명령 없이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가? 근래에 참모군관(參謀軍官)과 유희(儒會) 및 상사(商社) 등은 애초에 인패(印牌)가 없는데, 석방과 처형을 한다는 소문⁴²⁾을 들었다. 이것은 모두 법을 벗어난 행동이다. 출진한 장령(將領)과 초토(招討) 및 소모(召募) 등의 직임 이외에는 함부로 처형하지 못하도록 할 것
- ③ 적산(籍産)과 납속(納贖)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도(逆盜)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그 법이 있다고 해도 죄가 분명하여 형벌을 시행한 뒤에야 할 수 있다. 근래에 각 진영에서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포획한 자와 도망간 자를 찾아내어 잡아갈 때에 먼저 그 재산을 몰수하여 없애버린다고 들었다.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며 울부짖는 이가 얼마나 되며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원악(元惡), 수괴과 체포하여 처형한 자 이외에는 재산을 몰수하지 말라. 더욱이 납속(納贖)은 해서는 안된다. 경비가 비록 엄중나도 자연히 뇌물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백성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이니 장차 어찌 하겠는가? 이 길을 한번 열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납속하는 일은 영구히 금지하고 시행하지 말 것
- ④ 상민(商民)이 비도를 토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보부상은 원래 규율이 있어 서로 경계하고

41) 정(鄭)나라를 다스렸으나 도적이 그치지 않았으며 :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아들 대숙에게 이르기를, ‘정치하는 데는 맹렬하게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대체로 불은 맹렬하므로 민중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에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무르고 부드러우므로 민중이 허물없이 여겨 함부로 보기 때문에 죽는 이가 많다고 하였는데, 대숙이 차마 맹렬하게 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하였더니, 정나라에 도둑이 많아져서 사람을 풀숲에서 뽑아 쓰게 되매, 대숙이 누우쳐 말하기를, ‘내 진작 부자(夫子)의 말을 따랐던들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군사를 일으키어 숲속의 도둑들을 쳐서 다 죽이니 도둑이 좀 그치게 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인용한 글이다.

42) 석방과 처형을 한다는 소문 : 상사는 보부상을 가르키며, 이들은 유희군과 함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민군을 불법으로 학살하였다.

도와서 사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비도를 토벌하는 것과 같은 일은 본래 그들의 책임이 아니니 보발(步撥)로 소식을 알리는 것 외에는 이유 없이 사람들을 모으지 말 것

12월 9일 순무영에서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의 실제 가담했던 농민군에게는 가차없이 처형할 것과 군관(軍官)·유회(儒會)·상인배(商人輩) 등이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남형(濫刑)·사형(私刑)·토색(討索)·침학(侵虐)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란(戰亂) 중에 그러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원도의 동남부지역인 영·평·정과 강릉일대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일찍이 동학이 들어와서 확산된 지역이다. 보은집회에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보은집회 이후 동학농민전쟁기에 구체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동남부지역이 먼저였다.

이는 평창 접주 오덕보(吳德甫)가 이미 8월에 강릉부 연곡, 신리면에 접소를 설치하여 동학을 포교(布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9월 11월에 오덕보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강릉부 연곡·신리면(현, 江陵 注文津) 으로 들어가서 작별한 활동은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다.

1894년 11월 19일(양, 1894년 12월 15일) [甲午十一月十九日]

연곡과 신리 2개 면의 종사관이 보고하기를, “본 면의 고마동(古馬洞) 신씨 집과 평창 동비의 괴수 오덕보(吳德甫)의 유치조(留置租) 10여석을 본 면에 나누어 주어서 군량에 보충하게 해 달라”라고 하여, 제송하기를, “보고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시 2개 면의 종사관이 보고하기를, “본면의 최수진(崔秀鎭)이 백미(白米) 20두(斗)와 큰 소 한마리를 군정의 대접에 출연했다”라고 하여, 데김(題肯)하기를, “군정을 대접하도록 출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감탄을 했고, 매우 가당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1894년 11월 19일⁴³⁾

1894년 11월 21일 평창군에 보내는 관문 [甲午十一月二十一日 關平昌郡]

상고할 일이다. 본 군에 사는 동도 오덕보(吳德甫)라는 놈은 지난 8월에 포교(布教)를 한다고 본 관아의 신리면에 와서 머무르며 접(接)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금 비류를 토벌할 때에 자취를 감추고 도망갔는데, 그놈이 한 짓을 보면 단순한 동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은밀히 잡아 압송하여 놓치는 분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놈의 논과 집이 신리 등지에 있으므로 도조(賭租) 15석은 우선 조사하여 군수에 사용한 뒤에 논과 집은 일일이 찾아내어 본 관아의 포청에 주어 포군을 양성하는 자금으로 삼아라. 오덕보란 놈은 기한 내에 뒤를 밟아 잡고 나장을 따로 정하여 결박해서 압송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관문이 도착하는 대로 먼저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 1894년 11월 21일에 평창군에 관문을 보낸다

봉평면 집장 겸 소모종사관姜위서(姜渭瑞)
포수대장(砲手隊長) 추운서(秋云瑞)
진부면 도암면 포수도대장(砲手都隊長) 이순서(李順瑞)
진부면 포수대장 출신(出身) 최윤범(崔允凡)
도암면 포수대장 권학녀(權學汝)
내면3리 방수도대장(防守都隊長) 황호녀(黃好汝)
내면1리 방수도대장 김윤신(金允信)
속사리 은두령(銀頭嶺) 방수군관(防守軍官) 김정선(金正善)
내면1리 집장 한학유(韓學愈)⁴⁴⁾

동학농민군은 9월 4일에 강릉관아를 점령했다.⁴⁵⁾ 이들은 강릉 관아를 점령하고 방을 내걸

43) 「東匪討論」, 위의 책, 438~439쪽.

44) 「東匪討論」, 위의 책, 439~440쪽.

45) 「臨瀛討匪小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4부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토벌자료, 473~474쪽.

"9월 4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 경에 읍에 들어오는데,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탄 자가 수 십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서 뒤를 따랐다. 길게 늘어져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통솔이 되지 않았고 존비(尊卑)도 없었다. 받은 대낮에 우비를 입었고, 검은 때가 묻은 파의(破衣)를 걸쳤으며, 수백 대(隊)의 귀신 얼굴을 한 병사들은 도읍을 통과해 시장에 가는 백성들처럼 보였다. 13자(字) 천주주문(天主呪文)은 상가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고 자신들이 스스로 행정을 처결하기 시작했다. 즉 삼정의 폐단을 타파하고 지배층의 토지 독점을 없애고 경작자인 자신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며, 재판권을 자신들이 직접 장악하여 지배층을 징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강원 중부지역의 동학농민군은 보은 집회 때부터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대접주 차기석을 중심으로 하는 흥천지역에서의 활동, 이화경과 임순화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윤면호를 중심으로 하는 횡성지역의 활동 등이다. 그러나 1894년 강원도 동학농민항쟁기에는 동남부지역 영·평·정과 강릉에 비해 활동시기가 좀 늦게 시작하였다.

활동이 늦은 이유로는 해월 최시형이 동학도들의 봉기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금지시켰기 때문이다.⁴⁶⁾ 물론 최시형의 명령이 모든 지역의 접주들에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충청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중부지역에서는 최시형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그 예로 흥천접의 동향을 다음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날, 내면(內面)에 있는 비도들의 괴수 차기석(車箕錫)이 스스로 득도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회유하니 그 무리가 1,000여 명이 되었다. 전하는 말에, “자신들과 호비(湖匪), 호남과 호서의 동학도는 같지 않고 다만 학업을 하며 의롭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이것은 한갓 그들 무리를 보호하려는 말로 참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면은 오대산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어 길이 막히고 멀고 산과 계곡이 험준하여 가서 토벌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현저하게 나쁜 행적이 없어 잠시 그대로 두었으나 식자(識者)들은 그것을 걱정하였다.⁴⁷⁾

이 자료를 통해 당시 흥천접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호남·호서의 세력과 구별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의 거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최시형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동학농민군의 탄압은 강화되어 지평 전 감역 맹영재가 이끄는 동학도별대에 흥천접이 습격당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고석주·이희일·신창희 등 우두머리가 체포·처형되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분산되었다.⁴⁸⁾

맹영재에 의해 파괴된 흥천접의 잔여 세력은 일부 대접주 차기석 세력에 합류되면서 활동도 구체화 된다. 이들은 9월 그믐 무렵부터 창고를 불 지르고 부호의 집을 파괴하며 식량을 약탈하고 보부상들의 재물을 약탈했다.⁴⁹⁾

10월 13일 밤, 차기석·박종백 등이 이끄는 중부지역 동학농민군은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동창(東倉)⁵⁰⁾을 공격했다.⁵¹⁾ 이는 수탈에 대한 저항의 표출이었으며, 자신들이 빼앗긴 곡식을 균량미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편, 맹영재의 진압군은 흥천 장야촌에서 농민군을 포살하고 다음날 흥천 서석에서 다시 접전을 벌였다. 이 접전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당하였다.

곡소리처럼 들렸다.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감박이며 웃으면서 껌속말을 하는 비루한 모습들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대단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그것에 놀리어 따랐다. 이에 마을에서 항산(恒産)이 없는 무뢰배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징협할 수 있는 신비한 술법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양반에게 놀린 분노가 있어도 지체가 낮아 펴지 못한 자나 남의 재물을 빼앗을 마음이 있으나 재주가 모자라서 빼앗기 어려운 자도 스스로 운수가 형통하리라 말하며 다투어 지름길을 찾아 물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46) 「시천교 역사」,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1, 여강출판사, 1991, 315쪽.

47) 「臨瀾討匪小錄」, 앞의 책, 481~482쪽.

48) 「羅巖隨錄」, 『동학농민전쟁사자료대계』 2, 여강출판사, 1994, 404쪽.

49) 「臨瀾討匪小錄」, 앞의 책, 482~483쪽.

50) 동창(東倉)은 강원도 내륙지방의 중요한 사창으로 세곡을 거두어 보관하던 곳으로 비가 많이 오면 뗏목을 이용하여 수운(輸運)으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보내던 곳이다.

51) 박준성, 앞의 글, 207쪽.

1) 원주지역과 동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교문과 강원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 원주지역은 동학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다.

그 첫째는 바로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반외세를 위한 봉기를 단행하였을 때, 원주지역에서도 임순화(林淳化)와 이화경(李和卿)이라는 동학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동학교도들도 봉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지도자들은 이미 1893년에도 충청도 보은 장내에서 교조인 수운 최제우 선생의 신원교조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원주지역의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참가한 바가 있었다.

둘째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가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빌붙어 기생하던 민씨척족, 그리고 보수 양반세력이 결합된 역사의 반동적 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뒤, 수십만 동학농민군의 희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수습과 동학 재건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와신상담하며 체포의 손길을 피해 강원도와 경기도를 전전하던 해월선생 이곳 치악산 수레너미에 은신하기도 하며, 최후로는 송골(현 원주군 호저면 고산리 송골부락)⁵²⁾에 은신하였다가 마침내 관에 피체됨으로써 38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역사적인 현상이 있는 고장이 바로 이곳 원주지방인 것이다.

특히 원주는 동학의 시천주사상(侍天主思想) 실천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줌으로써 "天地萬物 莫非侍天主"이며 "天地即父母요 父母即天地니 天地父母는 一切"라는 大生命思想을 확립해 낸 해월 최시형 선생의 최후의 발자취가 어린 고장이라는 점에서 동학교문과는 남다른 인연을 가진 고장이다.

2) 치악산 수레너미와 해월선생

원주에 있는 치악산과 동학 2세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과는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다. 1894년 제2차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해월선생은 몇 사람의 제자들과 더불어 관의 체포를 피해 간고한 잠행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895년 12월 해월선생은 인제의 느릅정에서 이곳 치악산 수레너미(일명 수레촌)⁵³⁾로 숨어들어와 다음에 2월초 까지 약 100여일을 머물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十二月에 神師 始定于原州郡水禮村하시니 雉嶽深處也라 草屋3間이 可以筮遯이오 啖諸飲水에 足以卒歲하니 此一着이 全仗孫秉熙周旋之力焉이라 與秉熙 天民 秉欽(應) 鶴仙 演局으로 同處하시 講貫道理하시며 探討時義러시니 終焉歲改러라(《天道教會月報》49. 1914년 8월호, 吳尙俊<本教歷史>)

해월선생은 이곳 수레너미에서 손병희, 손천민, 손병흠(손병희의 아우), 김연국과 등과 더불어 숨어 지내며, 1894년 이후의 민심 수습과 흩어진 교인들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준비하는 동시에, 고령인 해월선생 자신을 대신하여 동학교문조직을 이끌 새로운 지도체제

52) 송골은 고산리 1반으로 고산 남쪽에 있다. 성골, 송동, 한일, 일곡이라고도 한다. 지명 유래는 예전에 소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송골이라고 한다.

53) 한다리에서 동남쪽 골짜기로 길게 이어지는 고개를 말한다. 동쪽으로는 황성군 강림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매화산 능선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 치악산 천지봉과 연결된다. 수레너미라고도 한다. 유래는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뜻을 풀이해 보면, 전국적으로 수레너미란 지명은 많다. 이 때 '수레'는 '車'의 뜻이라기보다는 산의 정상 을 뜻하는 '술', '수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의 정상을 넘는 고개'란 뜻이다. 산 이름을 뜻하는 많은 '수리봉'도 수리가 살아서일 수도 있으나 정상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를 구상하고 그 체제 정비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수레너미에서 비로소 손병희에게는 의암, 손천민에게는 송암, 김연국에게는 연암이라는 도호를 내렸고, 이 세 사람에게 서로 힘을 모아 앞으로의 교문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당부도 하였다.

의암 손병희가 세운 천도교의 자료에서는 이곳에서 해월선생이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해월선생을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1894년 봉기 이후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으므로, 동학교문의 전반적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해월선생과 제자들 사이에 교리 공부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수레너미는 1894년 봉기 이후 거의 궤멸 상태에 빠져있던 동학 교문이 재기를 도모하던 역사적 장소였다. 하지만 이곳은 치악산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로 몇 집밖에 되지 않아 쫓기고 있던 해월선생으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었으나, 너무나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다. 여기에다가 될 수 있으면 신변 안전을 위해 교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도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100여일간 이곳 수레너미에서 숨어 지낸 해월 최시형 선생은 1896년 2월경에 충주의 마로택(일명 말루촌 또는 마로탁)이란 곳으로 옮겨감으로써 수레너미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수레너미란 장소는 현재 어디를 말할인가? 수레너미는 한자(漢字)식으로 한역(漢譯)하면 수유동(車踰洞)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태종임금이 이곳 치악산(雉巖山) 아래에 은거하고 있던 원천석 선생을 찾아보고자 수레를 타고 이곳을 넘어갔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수레너미는 행정구역상으로 황성군 안흥면 강림리에 속해 있다가 지난 1989년 4월 1일자로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속하게 되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주에서 구룡사 조금 못 미쳐 학곡리(鶴谷里)에서 들어가야 한다. 왼쪽편으로 우뚝 솟아있는 해발 1085미터나 되는 매화산(梅花山)⁵⁴ 자락에 있는 한다리⁵⁵ 마을쪽으로 꺾어 오르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다른 하나의 길은 황성을 거쳐 강림 월현 부곡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강림면 소재지 조금 못미쳐 가천초등학교 앞에서 오른쪽 산을 향해 농로길을 따라 약 2킬로 정도 가면 산막골 마을이 나타나고, 산막골에서 다시 1킬로 정도 더 올라가면 수레너미 마을이 나타난다. 수레너미 마을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피난지로서의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는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마을 뒤로는 관헌의 추적을 피해 숨어들어갈 수 있는 험준한 산이 솟아 있으며, 동시에 피신로가 갖춰진 승지(勝地)였다.

3) 해월 최시형 선생의 피체지 원주 송골

원주에는 해월 최시형 선생이 피신하여 지내다가 1898년 4월 5일(양력 5월 24일)에 72세의 고령으로 관가(官家)에 체포되었던 지역이다.

54) 한다리 남동쪽에 소재하고 있는 높이 1,085m의 산을 말한다. 신선봉이라고도 한다. 매화산은 소초면 학곡리, 황성군 우천면, 황성군 강림면의 경계이다. 수레너미를 경계로 하여 치악산과 구분되며 북쪽에는 강림으로 넘어가는 전차가 있다.

55) 장터와 무쇠점 사이에 있는 큰 마을이다. 백교(白橋)라고도 한다. 유래는 옛날에 흰 돌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지명을 풀이해 보면, 한+달+이>한달이>한다리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달'은 산 또는 들을 말하므로 큰 산의 뜻이다. 매화산, 치악산 아래에 있으므로 큰 산 아래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 같다. 한+달+이>한다리가 되므로 '다리'를 다리(橋)로 보고 한은 '백'을 취해서 백교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달리의 백달과 같은 이치이다.

의암 손병희 등이 이끄는 북점의 농민군이 충북 무극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대패함으로써 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그 후 인제 등 강원도 오지를 전전하며 관가의 지목을 피하며 고통스러운 피신 생활로 들어갔다.

그 후 해월 최시형 선생과 주요 제자들은 1897년 8월 하순경에 음죽 양산동(현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수산리 앵봉 아래마을)을 거쳐 당시에는 강원도 원주에 속하였던 전거리니(현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로 피신하여, 이미 제자가 마련해둔 집에 은신했다. 당시 해월 최시형 선생은 6,7월경부터 이질(痢疾)에 걸려 식음이 불편하고 간혹 하혈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한벽처(閒僻處)를 찾아 몸과 마음을 위해 정양(靜養) 하였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길가 마을 중앙에 있었다. 그 집은 큰 규모의 초가집으로 안채는 8칸, 바깥채는 6칸이었는데 6·25 때 폭격을 맞아 불타 버렸다. 그러나 관군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은신처가 발각되고 말았다. 이천 보통리에 사는 교도 권성좌가 그만 체포되어 고문에 못 이겨 해월 선생의 은신처를 불고 말았다.

다음해 1월 4일 갑자기 들이닥친 20여명의 이천 병졸들이 병중에 있던 해월 최시형 선생을 지목하자 의암 손병희가 서울에서 온 이교관(李敎官) 이라고 하며 오히려 호통을 쳐 포졸들을 쫓아버리는 기지를 발휘하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였다.

또한 충실한 제자였던 김낙철(金洛喆)이 해월 최시형 선생으로 가장하여 대신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이렇게 긴박한 순간을 넘긴 해월 최시형 선생은 그날 밤 다른 제자들과 무턱대고 길을 떠났다. 한겨울의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일행은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는 등 온갖 고생을 하였다.

다음날 일행은 또 다시 길을 떠나 경기도 지평 갈현(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하갈마을)을 경유하여 흥천 남면 제일동(濟日洞; 현 남면 제곡리 제일마을)에 살고 있는 교도 오창섭(吳昌燮)의 집을 찾아 도착하니 집이 극히 가난하여 칩뿌리 개떡도 먹어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일행은 여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방아재리를 거쳐 원주의 접주 임학선(林鶴善)의 주선으로 마침내 최후의 피신지인 이곳 원주의 송골로 들어왔다. 그때가 1898년 2월 그믐날(양력 3월 21일)로 이 해에는 윤3월이 들어 있었는데, 수운 최제우 선생이 득도한 1860년에도 역시 윤 3월이 있었고, 또한 수운 최제우 선생의 득도일은 해월 최시형 선생이 이곳에서 피체된 4월 5일이라는 기이한 인연이 있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이 이곳에서 머문 지는 겨우 2달 정도였던 것이다. 원주 송골에서는 원진여(元鎭汝)의 집에 머물렀다.⁵⁶⁾ 그리고 의암 손병희는 섬배(현 원주 소초면 의관리 윗섬배), 또는 둔둔리(아랫둔둔)에 있었고, 김연국은 옥직리(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수제자들도 원주 송골과는 10리 안팎의 지역에서 피신하였던 것이다. 송골로 들어온 이후 해월 최시형 선생의 병세는 많이 좋아져 풍채도 회복되었다. 송골에 머무르고 있을 때의 상황을 전하는 유일한 기록은 평안도 교인인 라용환(羅龍煥)이 이곳을 방문하고 남긴 방문기이다.

...(전략)... 의암(義菴, 손병희 ; 필자주) 선생을 처음 뵈었던 송산(松山; 송골 : 필자 주)서 약 5리가량 되는 섬배란 곳에 있는 이화경(李和卿)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성사(聖師)로 말씀하면, ...(중략)... 72세가 되신 노 할아버지가 억조창생(億兆蒼生)의 생사고락(生死苦樂)을 생각하시면서 초당(草堂)에 단좌(端坐)하고 계시다가 우리 청년제자를 인견(引見)하시고 "편안히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북(西北)에 포덕(布德)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56) 원진여 씨의 집은 6·25 때 폭격으로 부서졌고, 집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로 되었는데, 안채는 부엌·툃마루·아랫방·윗방이 있었고, 사랑채는 방앗간·외양간·부엌·사랑방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한다.

실로 감격에 넘쳐 울쩍 하였습니다. 그 노당익장(老當益壯)하신 기풍이라든지 그 낙발(落髮)이 다 되신 머리에 3층 관(冠)을 쓰신 것이라든지 그때 인상이 날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⁵⁷⁾

나용환의 기록에 의하면 해월선생은 이곳 송골에서 주재하면서 동학교문의 중대사는 모두 수제자들인 3菴(義菴 손병희, 松菴 손천민, 龜菴 김연국 ; 필자 주)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국 각 지방의 교문조직도 이들 3암이 통솔하도록 하는 3암 지도체제를 확립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평안도에서 찾아간 나용환 일행은 다만 해월선생을 배알했을 뿐이요, 하등의 도담(道談)도 듣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다. 도담은 의암(義菴)께 들었다고 쓴 사실로 보면 송골에서는 동학교문의 지도체제가 이미 3암체제로 있었던 것이다.

2개월여에 걸쳐 송골에 주재하면서 동학의 재건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던 해월선생에게도 마침내 40여년에 걸치는 도망자의 생활을 마감케 하는 최후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4월 5일은 수운(水雲)선생께서 득도(得道)하신 기념일로서 연례적으로 전국 각지의 교인들이 해월선생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가 있는 곳에 모여 기념식을 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4월초에 송골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모여 들었으나 해월선생은 4월 4일 모여든 제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체포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임순호의 목격담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4일은 성사(聖師, 의암 손병희; 필자주), 구암, 강암(손병흠), 신현경, 나(임순호) 다섯 사람이 선생을 모시고 있었는데, 해월신사(海月神師)께서는 모두 각기 돌아가 향례를 지내라 하시고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와 임도여만이 남아서 해월신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임도여는 나무를 하러 가고 나 혼자만 있었다. (중략) 그 이튿날 4월 5일의 일이다. 나는 해월신사 옆에서 쫓신을 삼고 있었는데 (틈만 있으면 나는 해월신사와 쫓신을 삼는 일이 많았다) 돌연히 머리가 아프고 현기가 나며 심기가 답답하여 동구로 나갔더니 관병 40~50명이 몰려오고 있었다.⁵⁸⁾

이렇게 해월선생이 계신 곳이 탄로(綻露)나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지방에서 경무국 소속의 세찰사 송경인의 하수인인 박모가 유력한 교도에게 접근하여 해월선생의 소재를 염탐하였다. 결국 해월선생이 여주와 원주 지역에서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송경인은 옥천군과 보은군의 병정을 이끌고 전거리니로 와서 해월선생 댁에서 심부름하던 자를 잡아 송골로 들어온 것이다. 50여명의 병정들은 5일 해가 밝기 전에 전거리니를 떠나 12시경에 송골에 도착하였다.

송골에서 체포된 해월 최시형 선생은 원주 문막까지 가마로 실려가 그곳에서 다시 배편으로 경기도 여주로 간 다음 서울로 압송되었다. 서울 경무청(警務廳)에 일단 갇혀있다가 서소문(西小門) 감옥에 수감되어 모진 심문(審問)을 받았다. 그리고 5월 30일(양력 7월 18일) 사형(死刑) 선고를 받고 6월 2일 (양력 7월 20일) 육군법원(陸軍法院) 교형장에서 위대한 일생을 마감하였다.⁵⁹⁾

2. 반동학농민군의 대응활동

강원도 지역에서의 반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강원감영에서 지시한 동학조직과 활동에 대한 대책에 따른 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⁶⁰⁾ 1894년 9월 초8일 순영(巡營) 및

57) 『新人間』 25, 1928년 7월호

58) 『海月神師의 隱道時代』, 『天道教會月報』 248호, 1931년 8월호

59) 성봉덕, 『해월신사 순도 경위』, 『新人間』 483호, 1990년 6월호

겸관(兼官)에 보고 [九月初八日 文告 巡營及兼官음력 1894년 9월 8일 (양, 1894년 10월 6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관아(官衙)의 각처를 지키는 등의 일은 단단히 경계하도록 타일러서 무사하며, 이 달 4일에 어떤 난류(亂類)들이 동학(東學)을 칭하며 영·평·정(영월·평창·정선 : 필자주)의 3개 읍에서 흘러들어 온 자가 수천 명이 되었고, 8개 읍에서 음식을 제공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동학도가 지나가는 곳의 길목에서 말을 빼앗아 타고, 총과 칼을 가져갔으며 심지어 부중(府中)에 4~5일을 머물렀습니다. 유정(維正; 惟正之貢으로, 維는 惟의 오기이다. 해마다 儀禮로 宮中 및 서울의 高官에게 바치는 供物)과 군세(軍稅) 및 적세(糶稅; 還穀) 등의 삼정(三政)을 마음대로 삭감하였고, 요호(饒戶)를 불러다가 재물을 요구하고 전답문서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관원과 백성을 구타하여 관아의 옥사에 가두고 민간의 송사(訟詞)를 쉽게 처결했으며, 주리를 트는 형벌(刑罰)로 위협하고 도당(徒黨)들을 불러 모았을 뿐 아니라 군기(軍器)를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읍촌(邑村)에서 못된 짓은 끝이 없으니 화적(火賊)이 분명합니다. 지금 도착한 감결내의 절해(節該; 王旨나 公文의 號旨)에 의하면, “도(道)를 내세우며 무리를 지어 소란(騷亂)을 피우는 자들을, 곧 군사를 징집하여 토벌(討伐)하는 거사(擧事)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민인(民人)은 각자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하유(下諭)한 감사(山辭)를 대수롭지 않게 보며 행동거지가 갈수록 더욱 놀랍고 패악(悖惡)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관아(官衙) 읍촌의 대소의 민인 4,000~5,000명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이번 달 7일 술시(戌時, 오후 7~9시) 쯤에 일제히 의병(義兵; 義旅)을 일으켜서 그들의 죄를 성토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병기(兵器)를 잡아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구타(毆打)할 때 적들 중에 죽음을 당한 자가 20명이 되었고 부상(負傷)을 당한 백성들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빼앗은 총은 7자루이고 창은 150자루이며 말은 3필입니다. 이런 연유를 우선 황공스럽게 급히 보고합니다.

9월 8일 순영(巡營), 감영(監營) 및 겸관(兼官)에게 글로 보고합니다.

위의 보고문에서 강원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응의식을 갖고 반동학농민군 의려(義旅)를 징발 조직하여 동학농민군과 항전한 사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 반동학농민군을 구성했던 참여계층은 어떤 신분층으로 편성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조사하였는데, 전현직 관료가 12명, 출신(出身)이 5명, 유학(幼學; 士人) 12명, 좌수(座首) 2명, 이방(吏房)·아전(衙前)·향리(鄕吏)가 6명, 집강(執綱) 2명으로 총 39명이 주요 세력 신분계층 이었다.⁶¹⁾

결국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탄압을 지휘 주도한 세력으로 영동지방 강릉의 반동학농민군 주도권은 강릉선교장 주인이며, 현 승지로서 관동소모사와 강릉대도호부사를 겸직한 이회원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원 영서지방의 흥천은 반동학농민군을 이끈 지평의 전 감역 맹영재이었고, 황성은 토포사인 횡성현감 유동근과 횡성출신 의정부 주사였던 전준시였다.⁶²⁾ 강원 중부지역은 반동학농민군의 주도세력은 전·현직 관리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향촌질서를 위협하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자신들의 향촌

60) 「東匪討論」에 의하면, 강원도는 1894년 9월 초8일 「감영(監營)의 지시에 의하여 원주·영월·평창·정선 4개 고을 점점 동학의 피해를 입어 종종 동학의 접(揆)을 설치하는 곳이 있게 되었다. 동학도(東學徒)는 걸로 학문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재물을 탈취하려고 했으며, 몇 달만에 그 무리가 번성하여 곧바로 세상을 뒤덮으니 참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반드시 즉시 달려가서 조사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겸관(兼官)에게 알려 보고하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8, 389쪽.)

61) 李基遠, 「강원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연구」, 『江原史學』 15·16, - 雲霞金奎時教授停年紀念論叢 -, 江原大學校史學會, 2000, 198~199쪽.

62) 「계초존안」, 갑오년 10월 1일[十月初一日] 아뢰기를, “최근에 들으니 관동(關東)에서도 비류들이 출몰한다고 하니 요충지를 방어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횡성 현감(橫城縣監) 유동근(柳東根)이 이미 토포사를 겸직하고 있으니, 본부(本府)의 주사(主事) 정준시(鄭駿時)를 소모관(召募官)으로 임명해서 협력하여 비류들을 막고 토벌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지배질서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전·현직 관리와 유생층은 반동학농민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나섰던 것이다.

IV. 동학농민항쟁 이후의 동향

1. 동학농민군의 동향

강원도지역의 동학농민항쟁이 진압되면서 동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토벌이 진행되면서 마을 곳곳마다 초소를 만들어 수색하고 산에 불을 지르고 동굴까지 살살이 수색하는 철저한 소탕작전을 당하였다.⁶³⁾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동학 잔당을 철저히 소탕하도록 각 마을에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잔당의 본거지를 토벌하면 예외 없이 그들이 살던 집을 모두 불질러 버렸다.⁶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거나, 양반 유생의 의병대열에 합류하여 탄압을 모면하거나 동학과 반대되는 서학(西學)에 가담하여 세력을 유지하거나 화적(火賊)에 가담하기도 하였다.⁶⁵⁾

강원도 철원에서 동학당의 재연 징후가 있어서 격문(檄文)을 전포(傳布)하였던 경우⁶⁶⁾와 강원도 황지에서 봉기한 평민의병장 김성삼·안문구 등이 금광 노동자와 녹림당 수백 명을 모았던 경우이다.⁶⁷⁾

이렇게 강원지역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의 재연을 도모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아 한말 전기의병에 참여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뛰어들어 반일·척왜활동으로 발전하여 반봉건, 반외세 활동을 계속 유지하였다.

2. 반동학농민군의 동향

강원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토벌, 즉 반동학농민군 활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군 토벌(討伐) 뒤 '의려(義旅)'로서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⁶⁸⁾에 오른 강원도 인물은 전 오위장(五衛將) 원세중(元世重; 3品 江陵義旅) 전 사과(司果) 이진석(李震錫; 6품 강릉의려), 전 감찰(監察) 이영찬(李永燦; 강릉의려), 참서(參書) 정준시(鄭駿時; 9품

63) 김중익,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308~309쪽.

64) 「동비토론」,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 여강출판사, 1986, 151쪽·172쪽.

65) 이윤상, 「대한제국기 농민운동의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4, 357쪽.

66) 韓祐勲,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 -江原·黃海道의 경우-」, 『韓國史論』 4,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78, 380쪽.

67) 이윤상, 위의 글, 363~364쪽.

68) 1894년 '동학농민항쟁' 당시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한 정부군(政府軍)과 자발적으로 의병(義兵)을 일으켜 정부군을 도운 '의려(義旅)'를 이끈 인물들의 신분·직위·계급(군인인 경우)·품계(品階), 활약한 지방 등을 기록한 필사본(筆寫本) 자료(29.1×19.4cm)로 1책 42장으로 군부에서 편찬한 정부측 농민군진압책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정부군의 경우는 주책(籌策)·장령(將領)·주모(主謀)·공략(攻略)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전관리(前官吏)·출신(出身)·유학(幼學)·진사(進士)·한량(閑良)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이며, 양반(兩班)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의려(義旅; 義兵)'의 경우는 전 관리(前官吏)와 양반(兩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出身)·유학(幼學)·진사(進士)·한량(閑良)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정부군이나 의려(義旅)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농민군(農民軍)과 대결한 조선말의 보수적인 대항세력의 인적구성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의 하나이다. 원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橫城義旅), 전 주사(主事) 김익제(金翼濟; 襄陽의려), 전 출신(出身) 김충근(金忠根; 平昌의려), 참위(參尉) 李哲和(原州義旅長), 유학(幼學) 최돈민(崔燉珉; 강릉의려) · 최오집(崔五集; 강릉의려) · 박동의(朴東儀; 강릉의려) · 강위서(姜渭瑞; 강릉의려), 이석범(李錫範; 양양의려) · 최주하(崔舟河; 양양의려), 이필재(李弼載) · 민기명(閔基命) · 유덕준(俞德濬) · 김준수(金僑秀; 양양의려) · 장혁주(張赫周; 양양의려) · 노정수(盧鼎秀; 양양의려), 조재영(趙在榮; 關東義將), 민주식(閔周植) · 유광채(柳光彩) · 박중훈(朴熏陽) · 이병조(李炳祚) · 임노규(林魯奎) · 유택근(柳澤根) · 박문양(朴文陽) · 이난헌(李蘭憲) · 이희문(李希文) · 홍우현(洪佑鉉) · 이민상(李敏尙) · 이학헌(李鶴憲; 강릉의려)이다.⁶⁹⁾

또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⁷⁰⁾에 오른 인물과 공적은 순무별군관(巡撫別軍官) 이필영(李弼榮)(3품 횡성군수, 납교(納橋) · 우금(牛金), 재차전공(再次戰功), 관동소모관(關東召募官) 김태진(金太鎭)(6품 인제군수), 초포존홀 각득기의(勦捕存恤 各得其宜), 관동소모진군관(關東召募陣軍官) 전 주사(主事) 이시영(李時榮) 출의수진 자판군량(出義隨陣 自辦軍糧), 관동소모진군관(關東召募陣軍官) 유학(幼學) 황기정(黃基鼎), 출의수진 자판군량(出義隨陣 自辦軍糧), 원주진사(原州進士) 이철화(李哲和 ; 9품 참尉), 창모의중 다착비괴(倡募義衆 多捉匪魁), 평창출신(平昌出身) 김충근(金忠根) 형착비괴지성문환(誦捉匪魁之成文煥), 양양유학(襄陽幼學) 이석범(李錫範) · 양양유학 이국범(李國範) 형제(兄弟)의 분의모려 영동뢰안(奮義募旅 嶺東賴安), 강릉민보장(江陵民堡長) 이수해(李守海) 협동의려 격과극적(協同義旅 擊破劇賊), 강릉수교(江陵首校) 이진석(李震錫) 추적축배 살획심중(追賊逐北 殺獲甚衆), 전 주사 정준시(鄭駿時; 9품 참書官) 모졸포군 순초둔비(募卒砲軍 巡勦屯匪), 평창군교(平昌軍校) 문도순(文道淳) 종김충근 작성문환(從金忠根 捉成文煥) 등이다.⁷¹⁾

이들 중 대부분의 인물은 항일 의병운동에 가담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강릉의려에 적극적으로 있었던 유학(幼學) 박동의(朴東儀)와 유학 강위서 이다. 강위서는 복재(復齋) 민용호(閔龍鎬, 1869~1922)⁷²⁾가 이끌었던 강릉의진(江陵義陣)의 전군장 및 선봉장으로 활약하였고, 박동의(姜渭瑞)는 강릉의진의 군사(軍師)로서 활동하다가 신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리고 집강(執綱)으로 연곡면 소모관(召募官)이었던 권익현(權益顯)⁷³⁾은 강릉의진에서 소모사(召募使)로 활동하였다. 양양의 사인(舍人)으로 순초군관(巡哨軍官)이었던 이석범(李錫範; 號 雲樵)은

69) 「東學黨征討人錄」, 「東學亂記錄」下, 620~624쪽.

70) 甲午東學農民抗爭時 軍部에서 농민군 진압과 진정에 공이 있는 자들의 성명 및 軍功을 적어 놓은 筆寫本 자료이다.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학농민전쟁이 진정된 후 18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록된 사람들을 보면 巡撫使 申正熙(중1품), 中軍 許璉(중2품), 軍部協辦 權在衡(중2품), 湖南招討使 閔種烈(중2품), 湖沼招討使 李勝宇(중2품), 忠清監司 朴齊純(중2품), 全羅監司 李道宰(중2품), 淸州兵使 李長會(중2품) 등 총 410명 인데, 직책·성명·품계(生存官吏의 경우)·軍功의 순으로 적혀 있어 이들의 성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地方官·武官이多數 수록된 외에 幼學·進士·出身 등도 이에 끼어있다(倡義를 통한 경우가 많음). 또 淳昌民·丁昌昱은 <潛率民丁 生擒全奉準>한 공으로, 淸州樵商 印鎬謹은 <率商立塘 偵探效勞>한 공으로 등록되고 있어 일부의 일반 人民과 樵負商이 東學軍의 진정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東學軍을 진정한 세력의 성격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1冊 21張으로 되어있다.(26.2×18.7cm)

71) 「甲午軍功錄」, 「東學亂記錄」下, 713~727쪽.

72)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거의한 뒤 병력을 이끌고 원주·평창·진부를 거쳐 1896년 1월 강릉에 진출하였다. 경유지에서 많은 수의 의병을 모았으며 강릉에서 포수들을 모아 관동구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의병진을 설치하고 핵심적 인물로 활동하였던 시기에 강위서와 박동의는 함께 활동하였다.

73) 소모중사관 권익현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召募從事官 權益顯]을 보면,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연곡과 신리 2개 면의 궁수·포수·창수 100명을 인솔해서 각별히 진고현과 부연치를 지키다가 도망가는 비류가 경내를 침범하면 날날이 뒤를 밟아 결박해서 잡아들여 법에 따라 처벌하라. 그리고 올해 집강(執綱)의 공무도 수행하고 사직(辭職)하지 말아야 한다. 1894년 11월 7일(「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8, 417쪽.)

강릉의진에서 좌군장과 민용호의 전령으로 활동하던 중 민용호의 명령으로 춘천관찰사 만나기 위해 밀파(密派)되었으나 관군측으로 전향했던 인물로서 그 후 경군(京軍)이 강릉을 점령할 때에 전도(前導)로서 참여하였으며, 일제치하에서는 양양지방의 대표적인 개화인물로 교육사업과 3·1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⁴⁾

이들은 모두 지방 유생으로서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이었다. 그러므로 강원도지역 향촌 지배질서를 위협하는 동학농민전쟁을 용납할 수 없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반동학농민군이 되어 활동하다가 일제침략으로 한말의 지배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자 항일의병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V. 맺 음 말

강원도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항쟁은 일반적인 삼남지방의 농민항쟁과 같이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농민항쟁은 폐정개혁을 내세우면서 반봉건적인 모순 해결과 반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나아가 중앙 봉건정부의 권력 타도라는 차원에서 제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경우에는 해월 최시형을 위시한 북접교단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었던 연유로 농민전쟁의 2차 봉기시기인 8월 중순부터 평창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9월 4일에 강릉부 관아를 점령했다.

이 때는 전봉준이 집강소체제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9월 10일 이전이며, 최시형 중심의 북접교단 지도부가 농민전쟁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9월 하순에 비해서는 훨씬 앞선 시기였다.⁷⁵⁾

원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강원도 농민항쟁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4년 농민항쟁을 이해할 때 제1차 농민전쟁은 반봉건, 제2차 농민전쟁은 반일·반침략투쟁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 지역의 농민군 활동은 요호(饒戶) 지주층의 착취, 지방관리와 이서배들의 탐학, 보부상들의 착폐, 삼정문란에 대한 대응 등 반봉건적 투쟁의 성격이 더 강했으나, 농민전쟁의 큰 흐름에 합류하려는 노력과 일본군의 토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반외세적이고 반침략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둘째, 강원도 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은 영월·평창·정선·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과 중부 내륙의 흥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세력으로 구분 된다. 두 세력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나 지도부의 구성, 지향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어느 쪽이나 동학 조직이 농민군들을 결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으며, 농민군의 주력은 빈농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하층 농민층이었다. 그러나 평창을 중심으로 활동한 농민군은 지도부가 지역의 유력자들이었으며, 8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봉건질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조금은 강했다. 이에 비해 흥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농민군은 동학조직 간부들의 비중이 더 컸으며, 9월말부터 활

74) 李求銘, 「江原義兵의抗日鬪爭」,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Ⅲ, 光復會 江原道支部, 1992, 182쪽.; 金鍾極, 「襄陽의列傳」, 文旺出版社, 1982, 26~28쪽.; 金鍾極, 「靈像」, 文旺出版社, 1985, 28~33쪽.

75) 이 때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군의 여력이 농민군 진압(鎮壓)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며, 경복궁 갑오왜란(甲午倭亂)으로 인해 조정에서 친일 개화파정부가 수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 진압의 양태가 농민항쟁의 성격을 특정 짓게 되었다.

동이 두드러지고 공주점령이나 서울진격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동학은 영월·평창·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전개 되었는데, 1894년 제2차 농민군의 활동에서는 흥천지역 쪽에 비해 동학조직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9월 이전에 반일에 초점을 맞춘 동학교단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셋째, 강원도의 반동학농민군 세력은 지주(地主) 요호(饒戶), 봉건관료와 이서배(吏胥輩)들이었으며, 그들은 향회(鄉會),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기존의 행정조직체계를 이용하여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가로막고, 군정(軍政)을 조발하고 포수(砲手)와 보부상(保負商)을 동원하여 토벌군(討伐軍)을 조직하여 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다. 강원도의 농민군은 향병(鄉兵)·민보군(民堡軍)의 성격이 강한 지방의 토벌군과 원주에서 파병된 순중군, 일본군 2개중대에 의해 두 세력이 분리된 채 고립되어 항전했다.

넷째, 동학농민항쟁이 진압된 이후 강원지역의 동학농민군은 가혹한 탄압과 토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동학농민전쟁의 재연을 도모하기도 했으며, 의병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동학농민전쟁 이후 강원지역의 반동학농민군은 의병으로 활동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들은 주로 유학과 집강층에 있었던 인물들로서 위정척사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향촌 지배질서를 위협하는 동학농민군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일제의 침략이 구체화 되면서 항일의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투쟁은 1894년 농민전쟁의 실패와 함께 반봉건·반침략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농민군의 투쟁정신은 이후 이 지역의 반일·의병투쟁과 식민지 독립운동의 역사적 토대를 만들었다.

강원도 동학농민항쟁에 참여했던 농민들과 반농민군 세력들이 반일·의병투쟁과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에 어떠한 몫을 담당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강원도 지역의 민중운동사와 변혁운동사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념비, 추모비, 표지석

□ 원주 송골마을 해월 최시형 선생 동학사적 추모비 및 피체지 표지석



△최시형 선생 피체지 추모비



△최시형 선생 피체지 표지석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후, 관의 추적을 피해 강원도 인제, 경기도 여주, 강원도 홍천을 거쳐 이곳 원주의 송골마을에 이주(1898년 2월 그믐)하였다. 당시 72세의 고령인 최시형은 의암 손병희를 비롯한 송암 손천민, 구암 김연국 등의 제자들과 여러 대두목들을 대동하고 이 곳 송골마을 원진녀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제자들은 동서남북으로 접소를 설치하고 잡인의 왕래를 엄중히 감시하였으며, 해월 선생에게 용무가 있으면 우선 의암 손병희나 구암 김연국이 있는 접소에 먼저 들려 허락을 받은 다음 한 밤중을 이용하여 만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시형은 1898년 4월 5일 최시형은 송경인이 인솔했던 경군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소문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898년 6월 2일 육군법원 교형장에서 사형되었다.

‘치악고미술동우회’가 이 장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송골)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도로변에 1990년 4월 12일에 추모비를 세우고 최시형의 피체 날짜인 매년 4월 5일 추모제를 열고 있다. 추모비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93cm, 폭 13cm이며, 1990년 11월 9일 그동안 피체지로 구전되어 오던 원진녀의 집터에 피체의 내력을 담은 표지석(상단: 가로 123cm, 세로 70cm, 폭 35cm, 하단: 가로 185cm, 세로 73cm, 폭 87cm)을 세웠다. 당시 최시형이 머물렀던 원진녀의 집은 6.25 때 폭격으로 없어졌으며 현재는 이환일씨의 고추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월 최시형 선생 피체지 표지석에는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을 기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天地즉 父母요 父母즉 天地니 天地父母는 一體也니라"

"海月 先生님 法說에서" 라고 기록하여 역사적 현장으로서 유지하고 있다.

□ 고성 왕곡마을 동학사적 기념비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1887년 왕곡마을에 처음으로 동학이 전파된 이래, 1889년 2월 동학 제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 왕곡마을의 김학도 집에 숨어 수 개월간 동학을 포교했다. 이런 영향으로 해월 최시형의 9월 기포령(1894년 9월 18일)때 동학 발생지인 경주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의 양양과 거진에서도 동학농민혁명군이 봉기하였던 것이다. 1997년 6월 2일 동학사적기념비건립위원회가 왕곡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비문에 <동학의 빛 왕곡마을>이라 적었다. 기념비의 규모는 가로 1.45m 세로 0.55m, 좌대 가로 3.2m 세로 1m이며, 기념비 입구에 '布德天下'·'輔國安民'을 새긴 돌을 각각 좌우측에 놓았다.

□ 영월 직동마을 동학사적 표지석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 2리

천도교 제2세 교주 최시형이 1871년 10월부터 1872년 9월까지 관의 박해를 피해 머물면서 동학을 포교했던 곳이자, 교조 최제우의 부인 박씨 부인과 그 가족들이 1872년 봄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관군에게 쫓기던 최시형이 은둔생활을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동굴이 있고(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 1-1) 그 속에 난방을 위한 온돌형식의 반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 6월 6일 천도교 서울교구여성회에서 크기 90×30×65cm이의 표지석을 건립하였다.

□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위령탑 및 자작고개 노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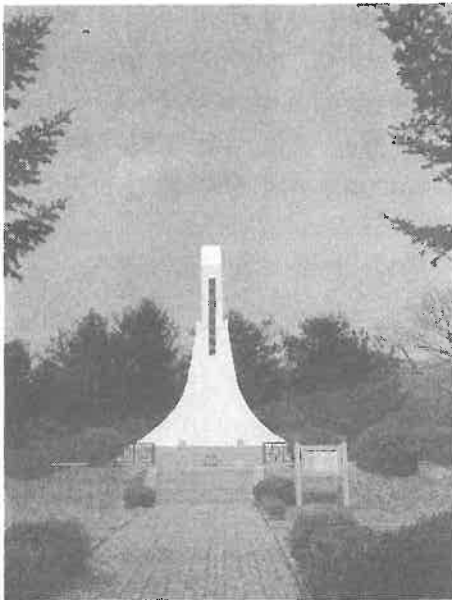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와 위령탑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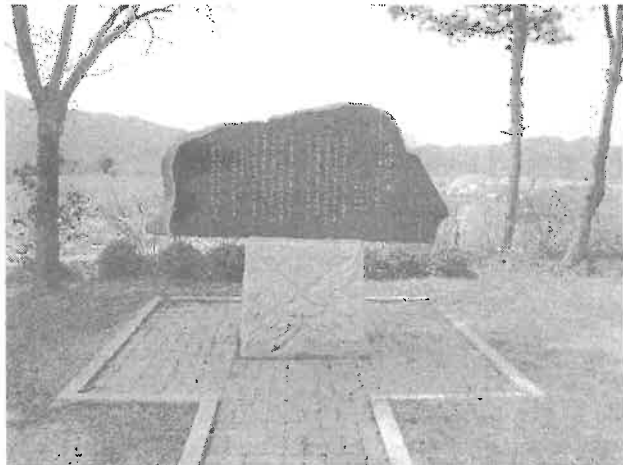
문화재지정 : 시도기념물 제25호(1977.11.28)

강원도 지방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이 강릉부를 점령(1894년 9월 4일)한 것을 시발로 하여 강릉, 영월, 평창, 정선, 홍천 등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차기석이 인솔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맹영재가 이끄는 토벌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80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주하였다. 풍암리 전적지는 규모나 희생자의 면에서 강원도 최대의 격전지였음이 인정되어 강원도 기념물 제 2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23일 유족 및 각급 기관장과 주민들이 모여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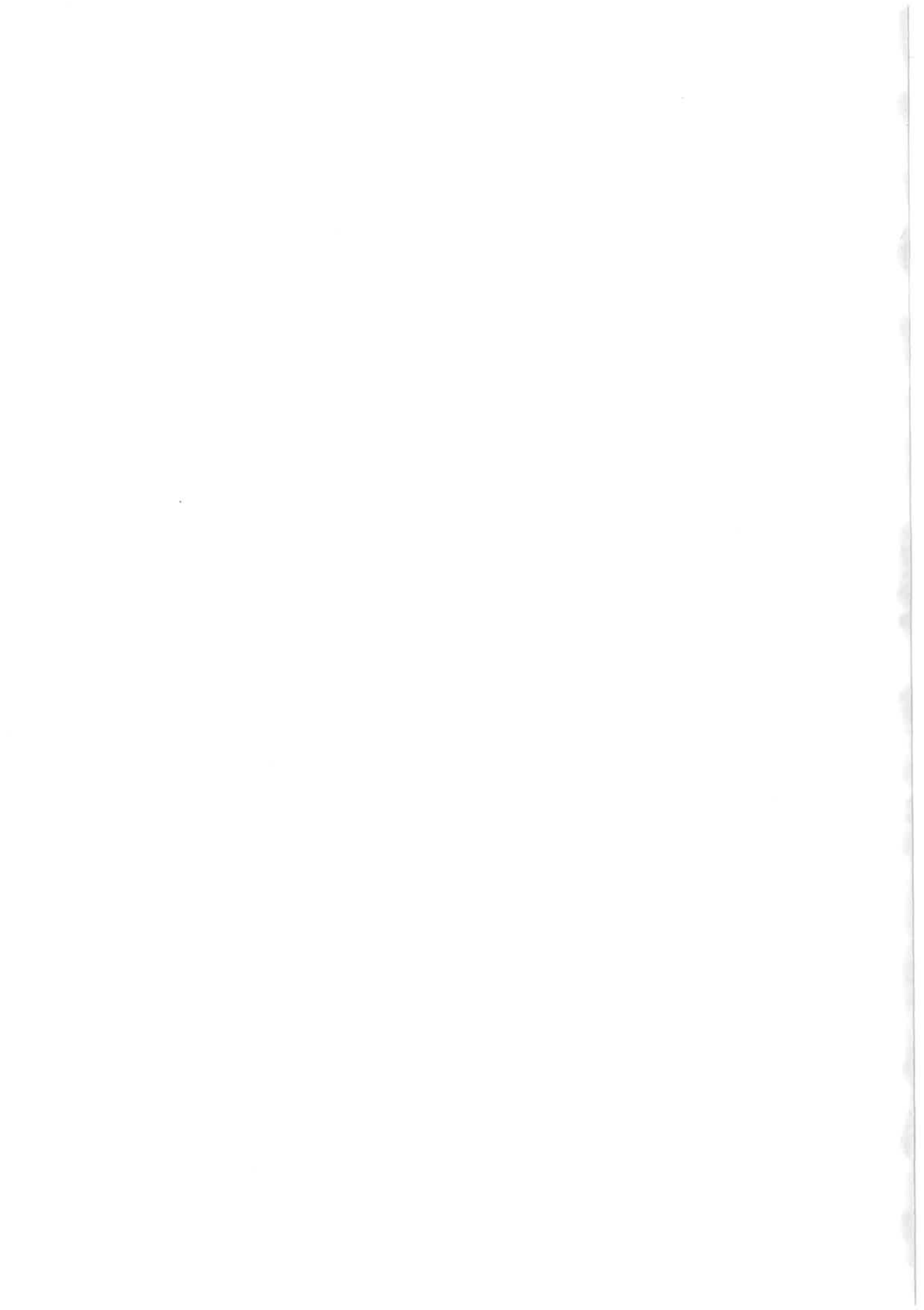
전적지 내에 홍천군과 주민의 성금으로 동학혁명전적지 위령탑이 1977년 12월 3일 건립되었고, 이후 2000년에 자작고개 노래비가 세워졌다. 위령탑의 높이는 9.7m, 기단은 높이 2.8m, 넓이 8.8㎡이며, 1998년 8월 28일 홍천동학혁명추모사업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위령탑



△자작고개 노래비



724 이씨 문장권 → 3.123

按?狀啓 * 金善根 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0 古6022-170 고 전
 운영실(6중) 고서목록6, 정법 경제 군사 원문소장기관 東京大學何川文庫(G23-227)

원주민란 - 조정달

- 지역적 특징 >> 한양의 사대부가 다수 낙거하고 있음
- 민란의 요인 >> 환곡의 폐해
- 1차 소요 >> 북창 소속 6개 면, 남성갑의 부정수탈에 대한 호소, 네 번째 등소 만에 수령 김호겸은 '분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남성갑 사살
 - 특징 : 남성갑의 죄목 중 이서이면서 양반을 능욕함
- 2차 소요 >> 사창과 영창에서 연이어 쫓기, 이서의 반격, 감사 민치상은 사족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림
 - 특징 : 감영의 판결 이후 이서들의 반격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사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함(이재화 소장 공자 영정 훼손, 김택수 행방불명, 이밖에 양반가 공격하여 가산 파괴, 신주, 사령서, 홍백패 등 훼손),

7 차례에 대한 저항

- ☞ 1885년 발생한 원주민란은 환곡의 폐해가 발단이 되었지만 사족과 이서층의 갈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1차 소요에서도 남성갑의 죄목, 그리고 2차 소요 당시 이서들이 반격에서 주 공격대상이 사족층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족층의 사회적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자 영정, 신주, 사령서, 홍백패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원주지역 향촌사회의 변동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사족층의 사회적 권위가 실추되고 이서층을 중심으로 한 '신향층'의 성장과 재편)
- ☞ 조정달은 민중의 덕망가적 질서관¹⁾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써 원주민란을 주목하였다. 즉, 민중들이 향촌사회에서 덕망을 지니고 있는 사족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덕망가적 질서관에 호소해 사회정의와 평균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했던 원주민란을 개항이후 민란의 특징으로 규정짓고자 하였다. 이러한 덕망가적 질서관이 동학농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리 저항 세력 이서층

질문 1) 본 논문에서는 원주민란을 동학농민혁명의 전제조건으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정달은 '덕망가적 질서관'이라는 당시 민란에서 나타나는 특징(물론 이는 조정달이 규정하는 민란의 특징이다.)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특징이 동학농민혁명에까지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심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와 같이 정의를 하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는 19세기의 민란을 동학농민혁명의 전제조건으로 막연하게 정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 19세기 민란의 '반봉건투쟁'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민중의 의식이 성장하여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일보 '진보'할 수 있었다고 되풀이 할 뿐이다. 과연 그러했는지는 좀더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조정달은 덕망과 정의감이 있는 사족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들에 의해 향촌의 질서가 조화롭게 재생하기를 기대하는 민중의 심성을 '덕망가적 질서관'이라 정의하였다.

724 이씨 문장권 → 3.123

724 이씨 문장권 → 3.123

지방 기록

그런 점에서 6쪽 1885년 원주민란을 계기로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 농민들의 항쟁이 전개되었다는 표현은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문 2) 원주민란과 동학의 포교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마치 원주민란을 비롯하여 이 지역 농민항쟁이 동학과 연관성이 있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란과 동학 포교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너무 기계적인 설명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가 1864년 영월로 정배된 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 포교되기 시작하여 원주 출신 장기서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93년 보은집회 당시 원주접에서 200여명의 참가했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주 접주 이원팔이 관동포의 대접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당시 강원도 지역의 동학조직은 원주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870~80년대 강원도 지역 동학조직은 영월과 정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왜 갑자기 1890년대 원주가 중심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팔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곳 동학 조직 지도부의 신분이 士族 또는 吏胥 인지에 따라서 이 지역만이 갖는 동학조직과 동학농민혁명의 특징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명분

1892년 7월 18일

질문 3) '척왜양창의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설명 부탁?

신비강의

질문 4) 동학조직에서 법소와 도소, 대도소의 관계 설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

추진

모름, 부탁

장기서

이서홍의
논의

항촌리배촌의 동학내년역사 논변